

2026 EBS 수능특강 현대시 원문 + 연계 N제

문항 출처: 평가원(08학년도~25학년도), 교육청(고1, 고2, 고3 08년~24년), 사관학교(21학년도~24학년도)

- 평가원 기출의 경우 18학년도 전의 기출은 모두, 18학년도 이후의 기출은 직접연계만 수록했습니다.
- 교육청 기출의 경우 교육과정 개편 이후의(21-24년 시행) 기출은 모두, 그 이전의 것은 직접연계만 수록했습니다.
- 고1, 2 교육청 기출은 연계된 고3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 수록했습니다.
- 만들다 한 5,6년 쓴 노트북이 블랙스크린 띄우고 기절했습니다... 힙스터 감성으로 사서 쓴 에이서라 수리도 짝세서... 그래도 윈도우 업데이트 다시 하나까 고쳐지네요. 드라이브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문항 기재방식: 2409 = 24학년도 9월 평가원 | 2404 = 24년 4월 교육청 | 24사관 = 24학년도 사관학교

-만들면서 들은 플레이리스트

01. The Circle (Bedman?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2. Extras (Elphelt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3. Symphony (A.B.A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4. The Gravity (Asuka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5. The Town Inside Me (Bridget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6. Radiant Dawn (Queen Dizzy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7. Like a Weed, Naturally, as a Matter of Course (Testament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8. Mirror of the World (Baiken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9. Armor-clad Faith - Guilty Gear Strive OST
10. Mr. Brightside - The Killers
11. 드라큘라(Dracula) - HeMeets
12. Stygia - Metal: Hellsinger OST
13. Blue Sky - Ace Combat Infinity OST
14. Drowning - WOODZ
15. Archange - Ace Combat 7 : Skies Unknown OST
16. Don't Look Back In Anger (Official Video) - Oasis
17. Champagne Supernova - Oasis
18. The Nights - Avicii
19. Wake Me Up - Avicii
20. 청년폭도맹진가 - 노브레인
21. 성간 여행 - 붕괴: 스타레일 OP
22. Wildfire (Cocolia Boss Thema) - 붕괴: 스타레일 OST
23. Stars Align - 쟈레스 존 제로 이블린 EP

-잠깐 지치면 몇 곡 찾아서 들어보세요. 힘찬 수험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기출 있는 현대시 //: 작가만 연계 ///: 작품까지 연계됨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 박두진, 「해」
2309(+연계:백석, 박두진, 신경림)
1706
2110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1306
09수능

2부. 현대시

- 조지훈, 「산상의 노래」
2406
2106
1806(+연계:조지훈, 이수익)
14B수능
10수능(+연계:조지훈, 송수권)
2207
2405
- 이육사, 「황혼」
22수능
18수능
1009
2107
2304(+연계: 이육사, 백석)
- 최두석, 「성에꽃」
2209(+연계: 최두석,오장환)
15B수능(+연계: 최두석, 오장환)
14B예비평가
1209
0810
- 정지용, 「불사조」
1809(+연계: 정지용, 김현승)
15A수능
1006(+연계: 정지용, 최승호)
2303(+연계: 정지용, 고재중)
- 문병란, 「꽃씨」
1111 고2(+연계: 박두진)
- 장만영, 「달 · 포도 · 잎사귀」
1409 고1
- 유치환, 「생명의 서 · 일장(一章)」
23수능(+연계: 유치환, 나희덕)
19수능(+연계: 유치환, 김춘수)
14B09(+연계: 유치환, 신경림)
- 이정록, 「희망의 거처」
2111 고2

- 신석정, 「역사」
16B09
2204(+연계: 신석정, 문태준)
- 송수권, 「지리산 삐죽새」
10수능(+연계:조지훈, 송수권)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21수능
0809
2210(+연계: 이용악, 신경림)
15B07
1210
- 신경림, 「나무」
2309(+연계:백석, 박두진, 신경림)
14B09(+연계: 유치환, 신경림)
0909
2210(+연계: 이용악, 신경림)
23사관
- 윤동주, 「병원」
20수능(+연계: 윤동주, 김기택)
1709(+연계: 윤동주, 박목월)
1309(+연계: 윤동주, 김기택)
11수능
0806
2310(+연계: 윤동주, 문정희)
- 김기택, 「벽」
20수능(+연계: 윤동주, 김기택)
16B수능
1309(+연계: 윤동주, 김기택)
- 김현승, 「눈물」
2506
1809(+연계: 정지용, 김현승)
- 김춘수, 「강우」
19수능(+연계: 유치환, 김춘수)
1106
- 김수영, 「과발 가에서」
2109
17수능
13수능
08수능
2203(+연계: 김수영, 백석)
2410
- 김용택, 「들국」
1706 고2

- 문정희, 「흙」
2310(+연계: 윤동주, 문정희)
1704
- 북효근, 「느티나무로부터」
2410
22사관
15B03

2부. 갈래 복합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2509(+연계:백석, 문태준)
2309(+연계:백석, 박두진, 신경림)
22예비
14B06
1109
0906(+연계:백석, 나희덕, 이수익)
2203(+연계: 김수영, 백석)
23사관
-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1006(+연계: 정지용, 최승호)
2304(+연계: 이육사, 백석)
22사관(+연계: 북효근, 최승호)
- 박목월, 「경사」
1709(+연계: 윤동주, 박목월)
24사관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1909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2009
2303(+연계: 정지용, 고재중)

3부. 실전 학습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23수능(+연계: 유치환, 나희덕)
15A06
0906(+연계:백석, 나희덕, 이수익)
- 문태준, 「가재미」
2509(+연계:백석, 문태준)
2204(+연계: 신석정, 문태준)
- 오장환, 「여수」
2209(+연계: 최두석,오장환)
15B수능(+연계: 최두석, 오장환)
- 이수익, 「방울소리」
1806(+연계:조지훈, 이수익)
0906(+연계:백석, 나희덕, 이수익)
13B07(연계: 윤동주 + 이수익)

기출 없는 현대시

2부. 현대시

- 심훈, 「그날이 오면」
- 최하림, 「아침 시」

2부. 갈래 복합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기출 있는 현대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맺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
아라. 훗훗훗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칩범을 따라

칩범을 따라, 칩범을 만나면 칩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
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
아 옛되고 고운 날을 누리 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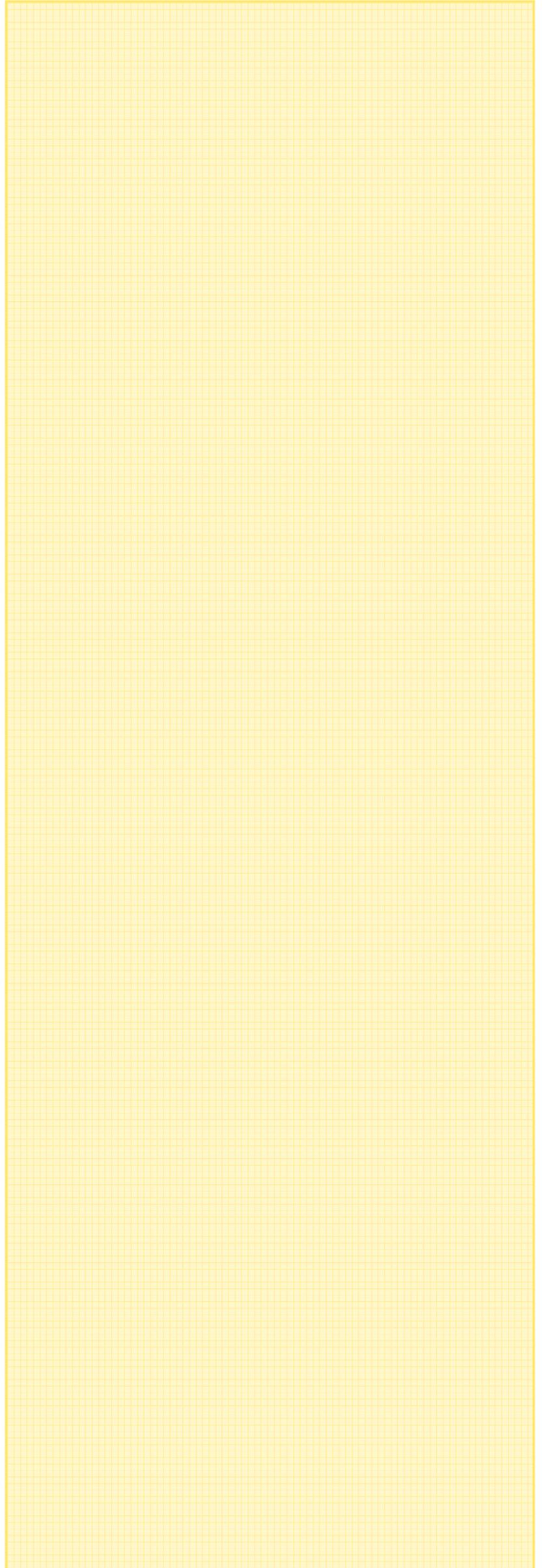
-박두진, 「해」 -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박두진 -1706-

(가)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등등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목중히 엮드린 산(山),골골이 장송(長松) 들
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영서리에 얽혔고, 샅샅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
뱀, 능구리 등(等),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산(山),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
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씹
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박두진, 「향현(香峴)」-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별써 솟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다)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
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질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
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
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
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

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
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릿한 내용을 갖게 한
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
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
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
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
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
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
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
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
럽다.

-박이문, 「눈」-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겨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나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뺨내를 잊은~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4.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운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5.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은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박두진 -2110-

(가)

1

부여안은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훑날린다. 골이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A]

파랗게 하늘이 열었다. 하늘에 나는 후 - 입김을 뿜어 본다. 스러지며 올라간다. 고요 - 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太古)! 태고에 놓여 있다.

2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겐가? -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쪽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B]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려라. 한 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 두견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 본다.

3

나는 눈을 감어 본다. 순간 번뜩 영원이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멀하지 않고 오래 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생각한다.

[C]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멀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원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로 화창하게 살아 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박두진, 「설악부」-

(나)

내 마지막으로 들 집이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산 아니면 또 어디이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육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이겠는가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 온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든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 내고 그곳에 채색된 단청(丹青)올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穴居)마저** 줄어든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가시 되어 일어선다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十字繡)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의 콩밭 누렁잎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 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 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내 이 길 역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돌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 둘수 있을까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와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도등 두드려 한 열흘 잠재울 수 있을까

먼저 간 발자국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 또한 뒤이은 발길에 이내 지워지고 말
한쪽 끝에는 대구(大邱)*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해사(銀海寺)
술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길

-이기철, 「길의 노래」-

* 예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뛰어난 지혜.

* 대구: 경상북도에 있는 대도시.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7.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흠날린다’, ‘뒤덮었다’, ‘빠진다’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는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B]는 ‘산’에서 ‘양지쪽’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 공간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B]는 ‘내 푸른 무덤’에 ‘도라지꽃’, ‘산나비’, ‘멧새’, ‘두견’ 등이 어울리는 모습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C]는 ‘살아 볼 날’을 ‘그립다’와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세계를 떠올려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8.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가닥도’는 화자가 욕심을 조금도 털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 ② ‘혈거마저’는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
- ③ ‘칠판 앞에서만’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삶에 성찰적 시선이 이르고 있음을 부각한다.
- ④ ‘예지도’는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자연에서는 성가신 것이 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⑤ ‘늘 내일로만’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부각한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나)는 무위(無爲)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두 작품은 자연의 가치를 조명하며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나며 죽으며 멀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고 한 것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항구적으로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달력’과 ‘일과표’가 ‘내 늑골 밑에서 보채’었다고 한 것은,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길’이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다른 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한 것은, 자연의 세계를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산’을 ‘내 영원한 어머니’로, (나)에서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산’을 ‘내 마지막으로 들 집’으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겠군.

[Pre.]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9-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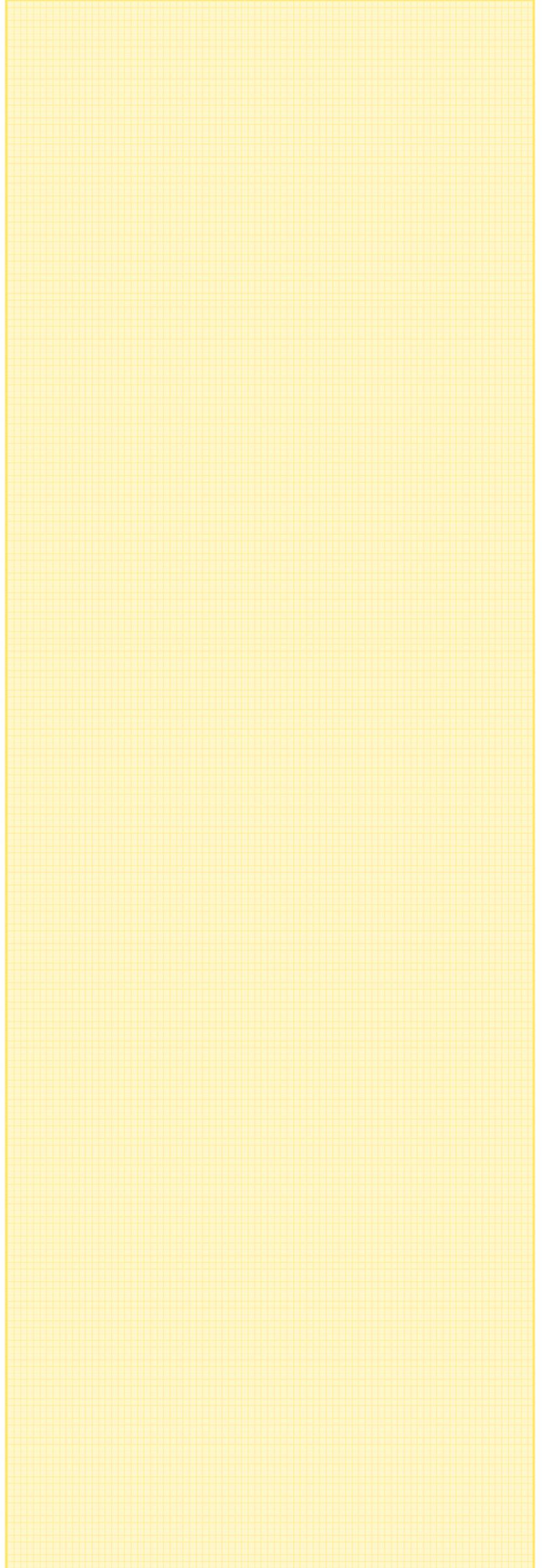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한용운 -1306 평가원-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뚜막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가득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떨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꼳꼳이 앓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쟈꼬.

-정철, 「사미인곡」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2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변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 남은 ~ 됩시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4.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5. (나)의 '부듯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듯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듯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듯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듯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듯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공경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웃'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입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한용운 -09수능-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김광규, 「나뭇잎 하나」-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 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루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더사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분 위 아침 햇상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A]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1-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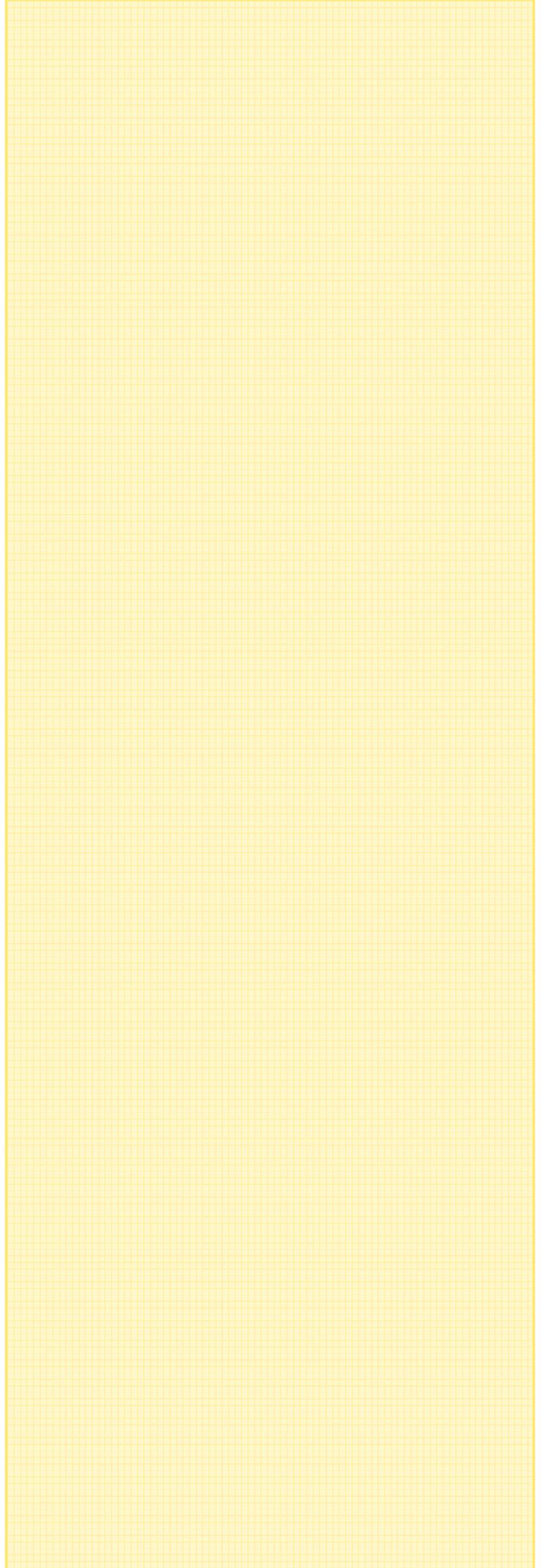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조지훈, 「산상의 노래」-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조지훈 -2106-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남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
[A]
〕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1」-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셋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무의 수사학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조지훈 -14B수능-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A]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툭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B]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B]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C]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C]

-곽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제2연: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 된다.
- ③ 제3연~제4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어디에’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회상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조지훈 -10수능-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버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빠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빠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빠꾸새」-

*길뜰 : 길이 덜 뜬

*세석 : 지리산 정상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뵈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넓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집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좋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랴 내리랴 모이랴 흠으랴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곰 좃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굳는 듯 잇는 듯
숨거니 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 머문 짓도 하도 할샤

-송순, 「면양정가」-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사정: 모래톱.

*노화: 갈대.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승무는 무녀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 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체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송순이 「면양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양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양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장'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양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조지훈 -2207 -

(가)

문(門)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흰출한 줄기마다
맺방석만한 꽃송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파아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퉁이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五色)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조지훈, 「꿈 이야기」-

(나)

누이여
또다시 은비를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뺨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경귀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잡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기형도, 「나리 나리 개나리」-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나)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 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죽음은 실제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잇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잇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조지훈 -2405 -

(가)

내 오늘밤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이 아득한 바다 속 창망(蒼茫)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웠나니

생(生)은 갈사룩 고달프고 나의 몸들 곳은 아무데도 없다 파도는 물려와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 것은 마즈막 ㉠물결소리 먼 해일에 젖어 오는 그 목소리뿐

아픈 가슴을 어찌란 말이나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닌데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돌레를 찰랑이는 접시 물 아아 바다여 너 또한 그렇거니

내 오늘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조지훈, 「묘망」 -

(나)

[A]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B]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수풀
너울대는 굴참나뭇잎 사이로
삼팽이 한 마리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결 위에서
햇볕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술한 나무와 짐승들

[C]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 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길푸른 숲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D]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 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E]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

(다)

갑오년 여름, 나는 달촌(達村)에서 예전에 살던 화오촌(花塢村)의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좁고 낮아 드나들 때마다 머리를 부

딴했다. 이때는 날씨가 무더워 마치 뜨거운 화로에 들어간 것 같았다. 게다가 모기와 파리가 달라붙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웃에 사는 이우열(李友說)과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월송정 숲속에 죽봉(竹棚)을 만들었다. 기둥이 모두 넷인데 셋은 소나무에 걸치고 하나는 나무를 따로 세웠다. ㉣가로목도 넷이고 그 위에는 대나무를 깔아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사방에는 모두 대나무로 난간을 엮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왼쪽에 긴 다리를 만들어 나무로 지탱하고 잔디를 깔아 오르내리기 편하게 했다.

죽봉이 완성되자 이웃 노인들과 보리술을 마시며 축하했다. 그때부터 매일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며 누워 잤다. 항상 솔바람 소리가 서늘하여 시원한 기운이 뼈까지 스며들었다. 더위가 힘을 잃어 감히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모기와 파리가 멀리 가서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마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몹시 통쾌하고 즐거웠다.

저 악양루(岳陽樓)와 황학루(黃鶴樓)는 크다면 크고 제운루(齊雲樓)와 낙성루(落星樓)는 높다면 높다. 그렇지만 그 화려한 건물과 현란한 단청은 여러 장인의 재주를 모은 것으로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다. 어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어찌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남달리 시원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입안으로 중얼중얼하다가 마침내 배를 내놓고 난간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홀연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손 모아 절하고는 다가와 말했다.

“그대의 죽봉이 좋기는 하지만 그대의 안색이 쾌활하지 않은 듯 하니 어찌서인가. 아마도 진흙탕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에서 한 자 남짓만 올라와도 통쾌할 것이다.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대의 죽봉이 더욱 통쾌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대의 죽봉이나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곳이나 진흙탕과 차이가 없다. 그대는 이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알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는 작은 것에 얽매어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속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 슬픈 일이다.

그대의 가슴속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빈 공간도 있다. 누각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창문을 활짝 열 수도 있다. 통쾌하기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눈에 담을 수 있고, 높기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마주 보고 인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장인이 재주를 부릴 필요도 없이 잠깐 사이에 만들 수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즐거움이 이 죽봉에 비할 바 아니다. 소박하고 시원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득실과 영욕, 희로애락 또한 빈 공간 속에서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이곳에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소나무 그들은 서늘하고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석양이 산에 내려 맑은 이슬이 옷을 적실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탄식했다.

“월송정의 신령이 내게 가르침을 내린 것이리라.”
마침내 기록하여 죽봉기로 삼는다.

-이산해, 「죽봉기」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조적인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목인 '묘망'은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는 뜻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로 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상을 깨닫는다.

- ①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다 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생은 갈수록 고달프고' '몸둘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너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사념이 지닌 크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의 계기가 드러난다.
- ② [B]에는 화자가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한 내용과 대비된다.
- ④ [D]에는 화자가 자신의 바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 ⑤ [E]에서 나타난 화자의 변화는 [A]에서의 화자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이다.
- ② ㉠은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의 각성을 방해하는 소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추억을 환기하게 하는 소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다른 대상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이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사한 집의 특성과 날씨로 인해 매우 힘들었음을 나타낸다.
- ② ㉡: 죽봉이 자연물을 재료로 지어졌고 규모가 넉넉함을 드러낸다.
- ③ ㉢: 죽봉에서 느끼는 시원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 죽봉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⑤ ㉢: 노인과의 만남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은 본질적 특성에서 나아가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주체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공간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 ① (나)에서는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며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 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는 산의 '어디서나' '지저귀는' '멧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에서,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아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동일한 공간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에서는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송정 숲속에 죽봉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새로운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는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에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구체적 공간의 한계를, (다)에서는 '가슴속'의 '누각'에 오르면 '세상의 득실과 영욕'도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에서 관념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2-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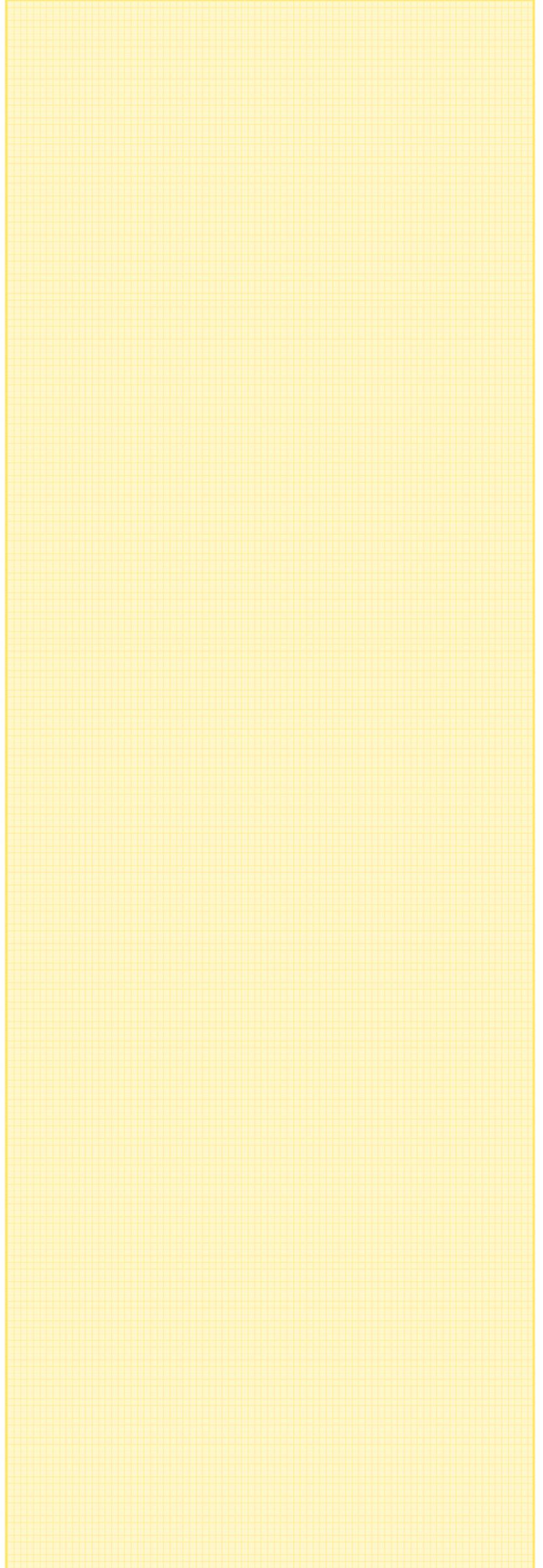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육사, 「황혼」-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이육사 - 1009-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쪼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이육사, 「소년에게」-

*진준가 : 진주인가.

*한가 :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송순, 「면양정가」-

*청하 : 푸른 연잎.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② (가)의 '뉘'과 (나)의 '흔'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스리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꽃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 의미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있'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6. (다)의 ㉢와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잇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와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는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는 '잇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와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이육사 -2107 -

(가)

- [A] 내 곶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B]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 [C]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중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 [D]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 [E] 내 **오월**의 곶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건**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나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나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김종길, 「바다에서」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③ [C] :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D] :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뿔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육사, 「노정기」-

* 발목정정: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올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씹으면서 살아왔다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C]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D]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E]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F]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물왕저수지라는 팻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꽂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G] 긴 가문 날 흙먼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팻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그 저수지에

[H]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I]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잉어들은 짹짹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J] 발효하는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다)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묻기를,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천한 일이운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대저 바다는 죽
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으며, 반드시 바닥까
지 잠겨야 하며, 숨을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찾기를
다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찢어야
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도 없으며, 전
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사람을 잘
무는 나쁜 고기들도 많으며, 바다 밑은 또 매우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
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십여 세가 넘으면
서 얕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익혀 깊은 데로 갑니다. 이십
세에 이르러서야 전복 잡이는 가능하며, 사십이 넘으면 그만
둡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털이 타
고 마르며, 그 살갓은 거칠고 얼룩얼룩하며, 일어나고 기거하
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의 괴롭고 천함이 이와 같으
며,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
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듣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하니, 그 잠수부가 입을 딱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
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녀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어 같을 것입니다.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
히 앉아서 녹을 먹고, 수레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
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이 우뚝 높고, 조정
에 들어가면 부(府)나 성(省)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
(州)나 부(部)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
를 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府省)
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領海)에 있습니다.

(중략)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
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
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 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
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어느 것이 더 낫
습니까?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
서 보건데,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벼슬
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
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
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픔입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
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
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일을 태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김진규, 「몰인설(沒人諫)」-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 (다)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가) ~ (다) 모두 청각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썰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밭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겠군.

3.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나’는 타인이 겪을 일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4. [A] ~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설(諫)의 표현 방법 중에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몰인설」의 글쓴이는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과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대화 상대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에서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2-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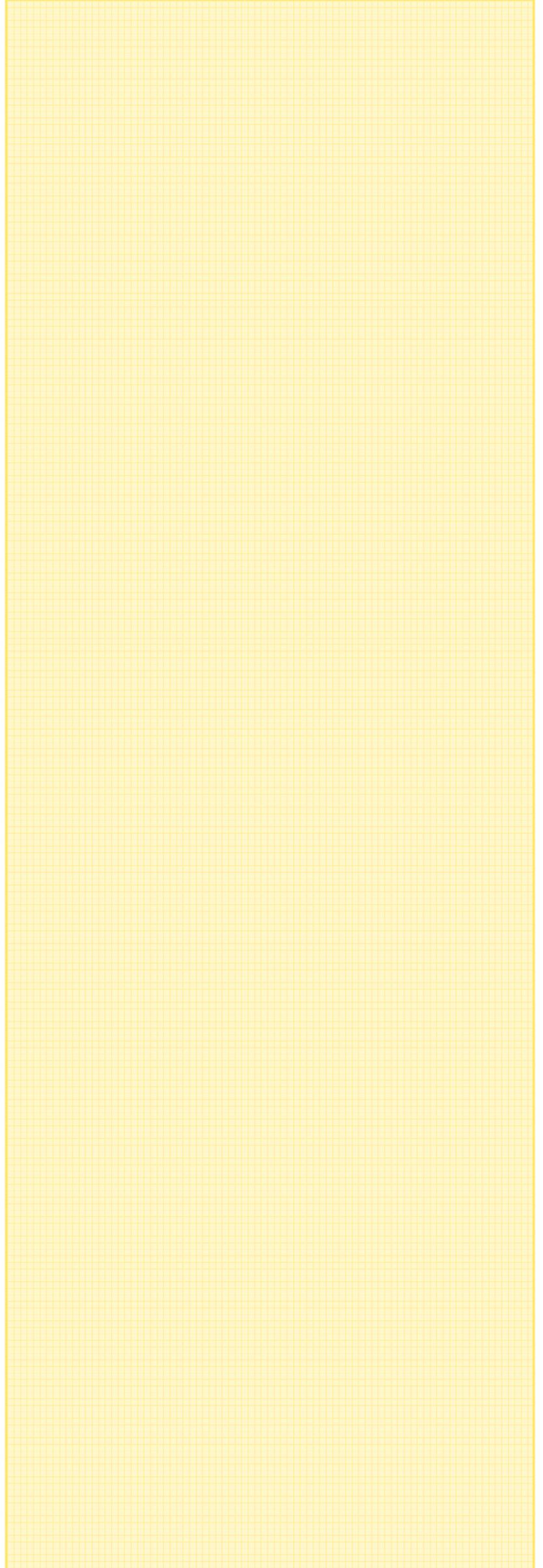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최두석 -15B수능-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젼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오장환, 「고향 앞에서」-

*예제로: 여기저기로.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
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
름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
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
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
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
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
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 병신 오리를 잡는다.

-최두석, 「낡은 집」-

1.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라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 가족의 일원이면서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한다.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대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러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최두석 -14B예비 -

(가)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A]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B]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B]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옷네. [B]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쁘하다. [B]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C]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C]

나비 제비야 꺾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C]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젓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C]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D]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꿨나 보다. [D]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E]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의 ㉠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C]의 ㉡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
- ③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 ④ [B]의 ㉣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
- 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3. '성애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애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② '성애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 ③ '성애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④ '성애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 ⑤ '성애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최두석 -1209-

(가)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1」 -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려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A]

[B]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놓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C]

[D]

[E]

[E]

[E]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충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 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릇’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최두석 -0810-

(가)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
 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고향인 그리
 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김관식, 「거산호 Ⅱ」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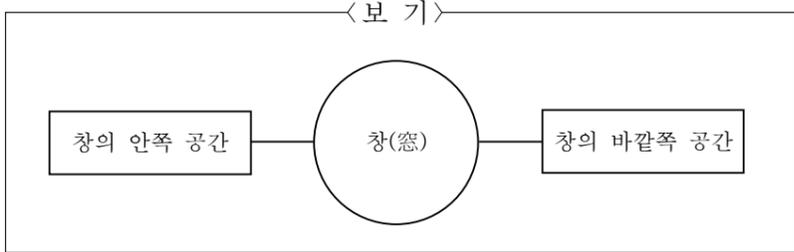
(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뎡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창문에 달
 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
 으며 삽니다.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닦이의 편지」 -

1. (가)~(다)를 <보기>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창 안쪽에 있다.
- ② (가)의 바깥쪽 공간은 (나), (다)와 달리,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창은 (가), (다)와 달리, 창 바깥쪽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 ④ (나)의 화자는 (가), (다)와 달리, 창 바깥쪽 공간에 다가가기로 소망하고 있다.
- ⑤ (가), (나)의 창은 (다)와 달리, 창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2.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사물의 속성을 나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

- ① <보기>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나)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성에꽃'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는 달리, (나)에서는 '성에꽃'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예찬적인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3-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비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었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은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진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 [행복] 이 너를 아조 싫어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에! 오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우습을 달었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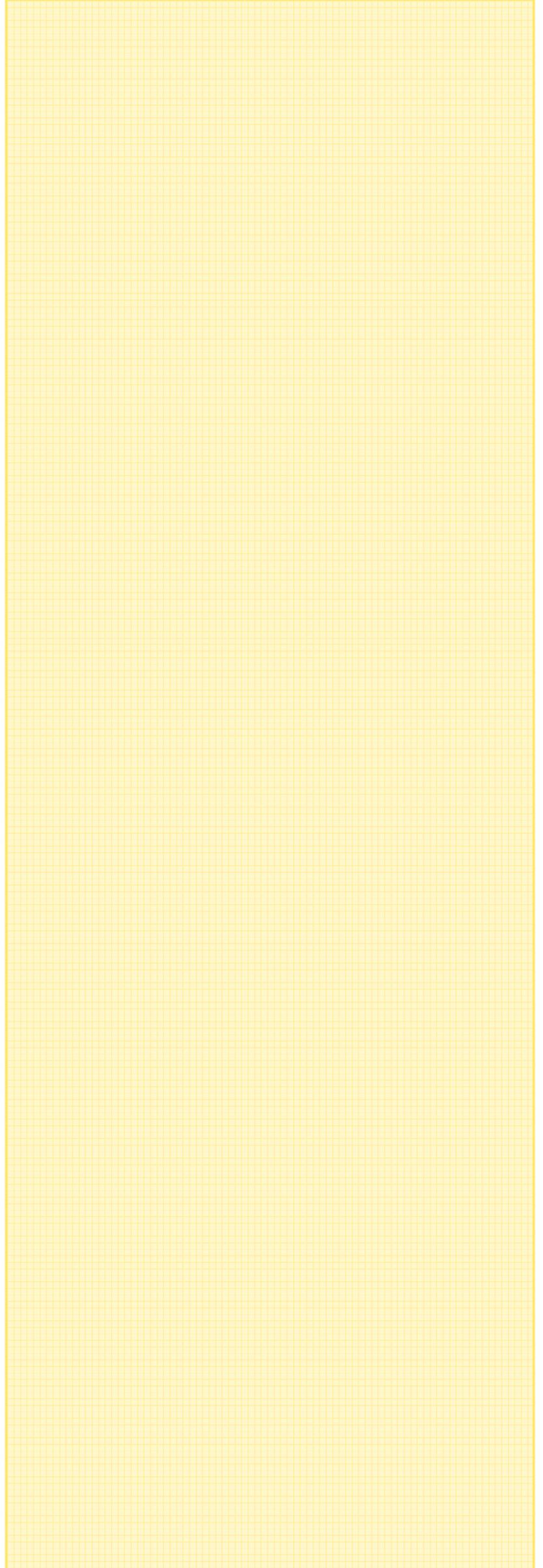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스시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정지용, 「불사조」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정지용 - 15A수능-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흠 머흠
골을 읊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정지용, 「조찬(朝餐)」-

*이윽한: 시간이 지난.

*길경: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광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 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담이에 비 뿌리지 않게 쳇*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쳇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쳇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덱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담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태준, 「파초」-

*쳇: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파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정지용 -1006-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 돌곳 몸 돌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올리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골짜기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2.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인 것 같아.

3.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 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4.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정지용 -2303 -

(가)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
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회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좃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
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정지용, 「장수산 1」—

* **벌목정정**: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나)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른다

[A]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 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 나게 닦은 마루에 곳곳이 앉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쉴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B]

사랑은 갓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 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C]

—고재중, 「고요를 시칭하다」—

* **고금**: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

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술’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 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좇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새암’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된다.
- ②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B]에서 점점 확산하여 ‘덩굴 장미’의 색채와 어우러지며 계절감을 부각한다.
- ③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마당에 ‘붉은 진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 ④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은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되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 ⑤ [C]에서 ‘초록바람’은 ‘오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오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겠군.
- ②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적 상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멧아리 소리 찌르렁’과 (나)의 ‘동박새가 / 딱 한 번 울어서’는 모두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겠군.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3-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슬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에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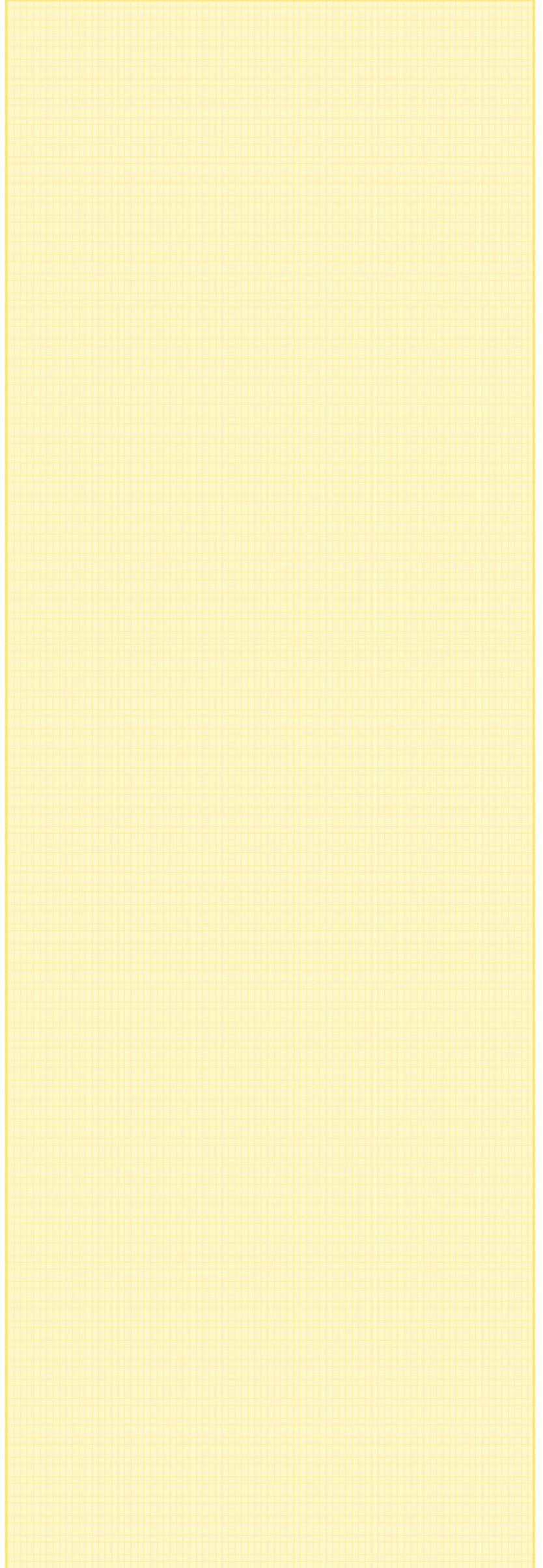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문병란, 「꽃씨」-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문병란 -1111 고2-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엇산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 묵중히 엮드린 산,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갯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산, 산들! 누거 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 즉하매,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
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짜릿순 툄
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박두진, 「향현(香峴)」-

*엉서리 : 사이.

*누거만년(累巨萬年) : 아주 오랜 세월.

(나)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슬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에의 껌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문병란, 「꽃씨」-

(다)

깊은 밤 눈 덮여 ㉣고적한 곳에
꽃꽂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침엽수들이 서 있다

먼 산맥을 이어
내어달리고 싶은 마음이건만
㉥푸르른 정열에 가두어두었다

눈이 내리면 온몸에 흰눈을 이고
바람이 불면 우우 소리를 낸다

일월성신 잦은 계절의 변화에도
일새조차 변하지 않음은 태고적 고독인가

㉦차운 바람 부는 날에도
나무는 오히려 위엄을 잃지 않는다

그러기에 겨울밤 차가운 별도
침엽수 머리 위에 더욱 반짝인다

-김명수, 「침엽수 시대」-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지어 대상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③ 시상의 반전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감정의 절제를 통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향현(香峴)」에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공동체가 처한 고압적이고 잔혹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속의 자연은 시인의 상상 에 의해 여과되고 굴절된 과정을 거친 ‘새롭게 태어난 자연’이며,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기를 염원하는 작가의 바람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다.

- ① ‘큰 산 그 넘엇산’은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며 화자가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군.
- ② ‘무수한 짐승’은 산을 구성하는 존재들로 화자는 이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바라고 있군.
- ③ ‘너희들 침묵(沈黙)이 흠뻑 지리함 즉하매’에는 암울한 상황에 대해 답답해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군.
- ④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에 의해 부정적 현실이 타개되기를 화자는 기다리고 있군.
- ⑤ ‘여우 이리 등숙’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약자들의 삶을 유린할 강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3. ㉔와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능동적 존재이며, ㉕는 수동적 존재이다.
- ② ㉔는 선망의 대상이며, ㉕는 연민의 대상이다.
- ③ ㉔는 변화하는 존재이며, ㉕는 항구적 존재이다.
- ④ ㉔와 ㉕는 모두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㉔와 ㉕는 모두 시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4. ㉖~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㉖ : ‘핏빛 꽃들이’ ‘몸부림’하는 시기로,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㉗ : ‘만져지는’ 느낌을 무게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꽃씨가 지닌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㉘ : ‘깊은 밤 눈 덮여’ 있는 곳으로, 어둡고 추운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④ ㉙ : ‘내어달리고 싶은 마음’을 ‘가두어두었다’는 표현과 관련지어 볼 때, 욕망을 제어하고 있는 내적 의지로 볼 수 있다.
- ⑤ ㉙ : ‘오히려 위엄을 잃지 않는다’라는 구절로 보아 ‘나무’의 가치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4-

순이 버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롭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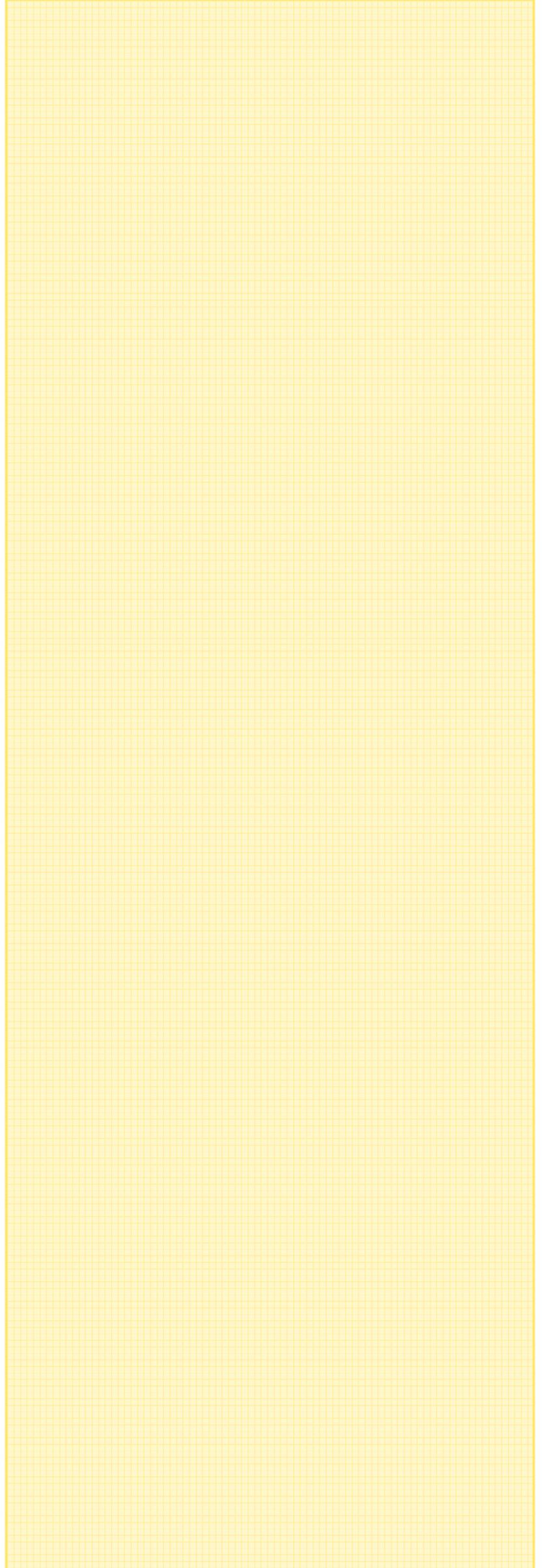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장만영 -1409 고1-

(가)

순이 버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나)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할 떠나면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송수권, 「까치밥」-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통해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전원예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2. (가)를 쓰기 위해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을 달밤의 서정’을 시로 표현하고 싶어. 시란, 언어의 그림이라 해서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이 필요해. 쉬운 단어로 참신하게 표현해야지.

- 달빛을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면,
 - 밀물처럼 밀려오다 ①
- 달빛을 의인화하여 친근하게 표현하면,
 - 고요히 앉아 있다 ②
- 달빛을 신선하게 표현하면,
 - 과일보다 향그럽다 ③
- 달빛의 하강적 이미지를 강조하면,
 -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르다..... ④
- 달빛과 포도의 조화를 표현하면,
 - 스며 고롭다..... 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작가는 도시 문명으로 인해 사라지고 잊혀가는 우리의 고향과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에 공감하였으며, 그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애정으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① ‘고향’은 ‘서울’과 대비되는,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간이군.
- ② 잊혀가는 소중한 전통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까치밥’에 나타나 있군.
- ③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을 형상화하였군.
- ④ ‘짚신’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떠나면 길’에는 ‘아이들’에게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작가의 확신이 드러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5-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가)

나의 지식이 독한 삶의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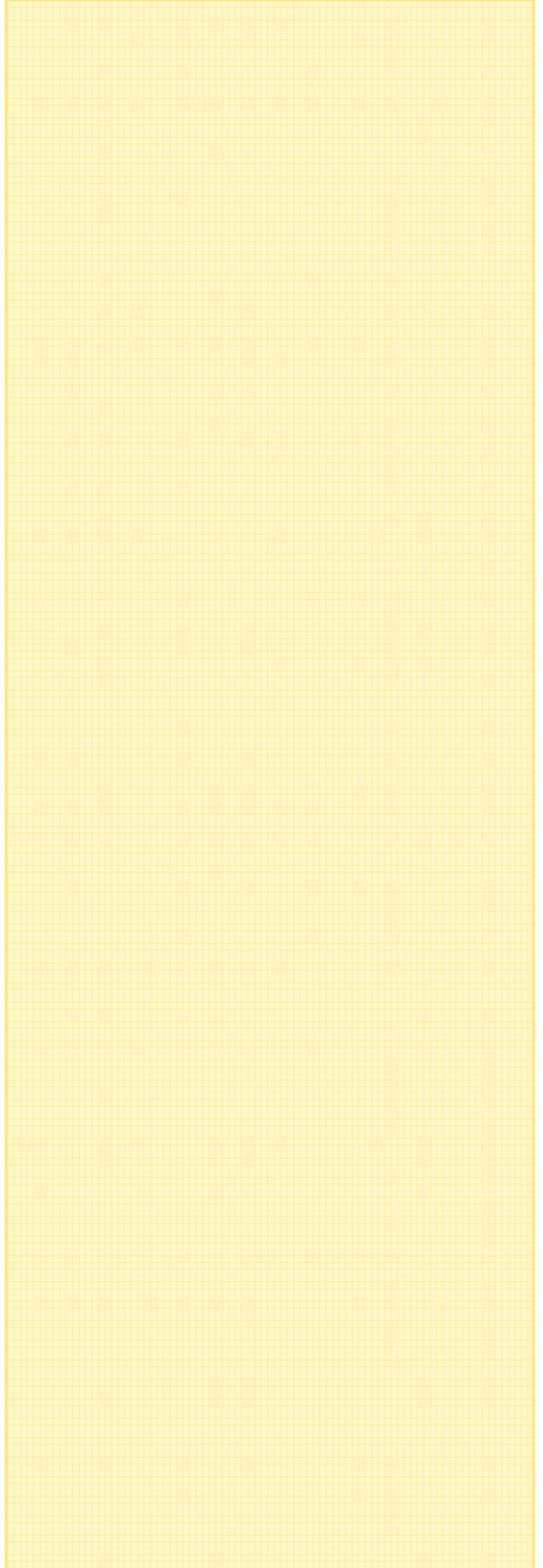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을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유치환 - 14B09-

(가)

나의 지식이 독한 삶의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신경림, 「농무」-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2.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과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5-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나)

옥수수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결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 울대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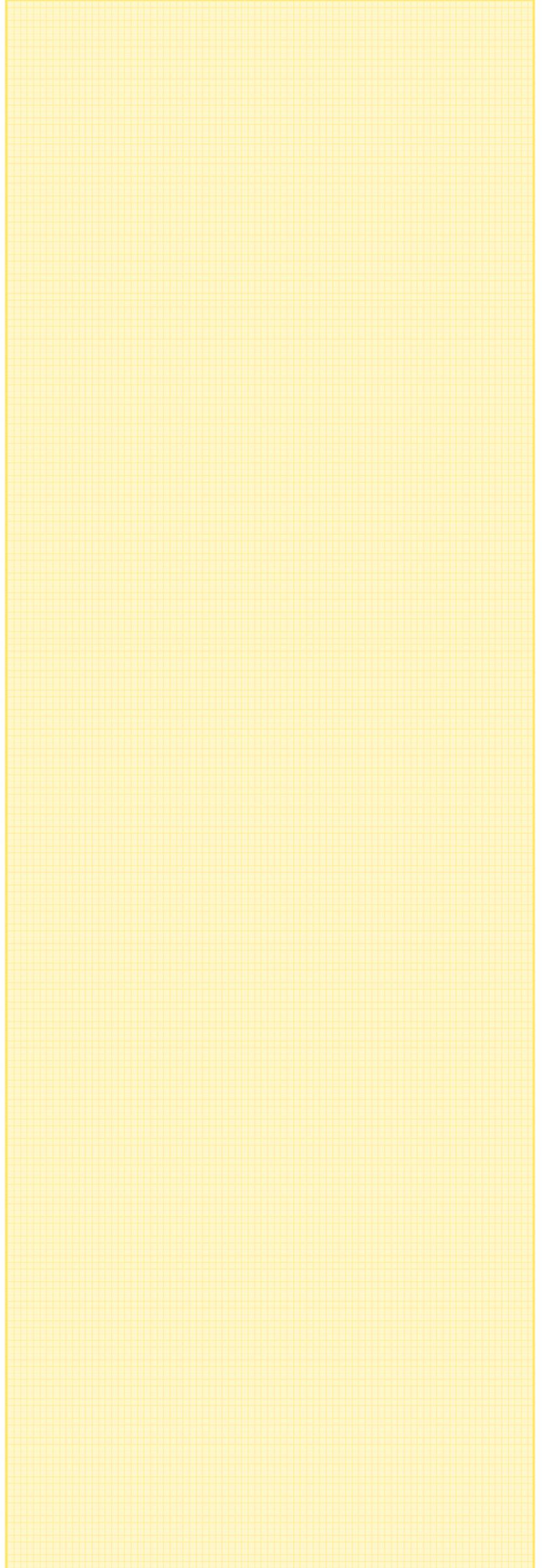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이정록, 「희망의 거처」-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이정록 - 2111 고2 -

(가)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카렌다아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검누른 소리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머언 해로를 이겨낸 기선(汽船)이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는 검은 기선이
뒤를 이어 입항했었고
상륙하는 얼굴들은
바늘 끝으로 속 찢렸자
숫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얼굴 얼굴 희머얼건 얼굴뿐

부두의 인부꾼들은
흙을 씹고 자라난 듯 꺼머턱턱했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어린
어린 노동자였고-

물 위를 도롭도롭 헤어 다니던 마음
흠어졌다도 다시 작대기처럼 곳곳해지던 마음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나를 믿고져 했었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
부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나진*이여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옥수수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결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 울대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신경림, 「농무」-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의문형 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점층적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직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외양에 드러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화자의 과거 회상 속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항구는 부두의 인부들과 어린 노동자인 화자가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한편으로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곳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런 항구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상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과 달리 화자는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아 삶의 의지를 다지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된다. 그리고 화자에게 이러한 과거 자신의 모습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① ‘검은 기선’이 ‘입항’하고 ‘희머얼건 얼굴’이 ‘상륙하는’ 것은,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인부꾼들’은, 이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고달픈 생활 현장으로서의 항구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며 자신을 ‘믿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은, ‘시금트레한 눈초리’와 대비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희망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마음’이 ‘흠어졌다’가도 ‘작대기처럼 곳곳해’졌다는 것은,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다가도 바다로 가로막힌 공간에서 좌절하곤 했던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이 ‘항구로 돌아간다’는 것은, 화자가 ‘그날의 나진’에서 자신이 가졌던 마음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겠군

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들이민다’는 ‘햇밭일지라도’와 연결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키우는 것이다’는 ‘맨밭의 근성’과 연결되어 옥수수대가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성장하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박는다’는 ‘흙집’과 연결되어 버드나무가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세운다’는 ‘스스로’와 연결되어 버드나무가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꺼내는 것이라고’는 ‘생이란’과 연결되어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생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6-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뚱뚱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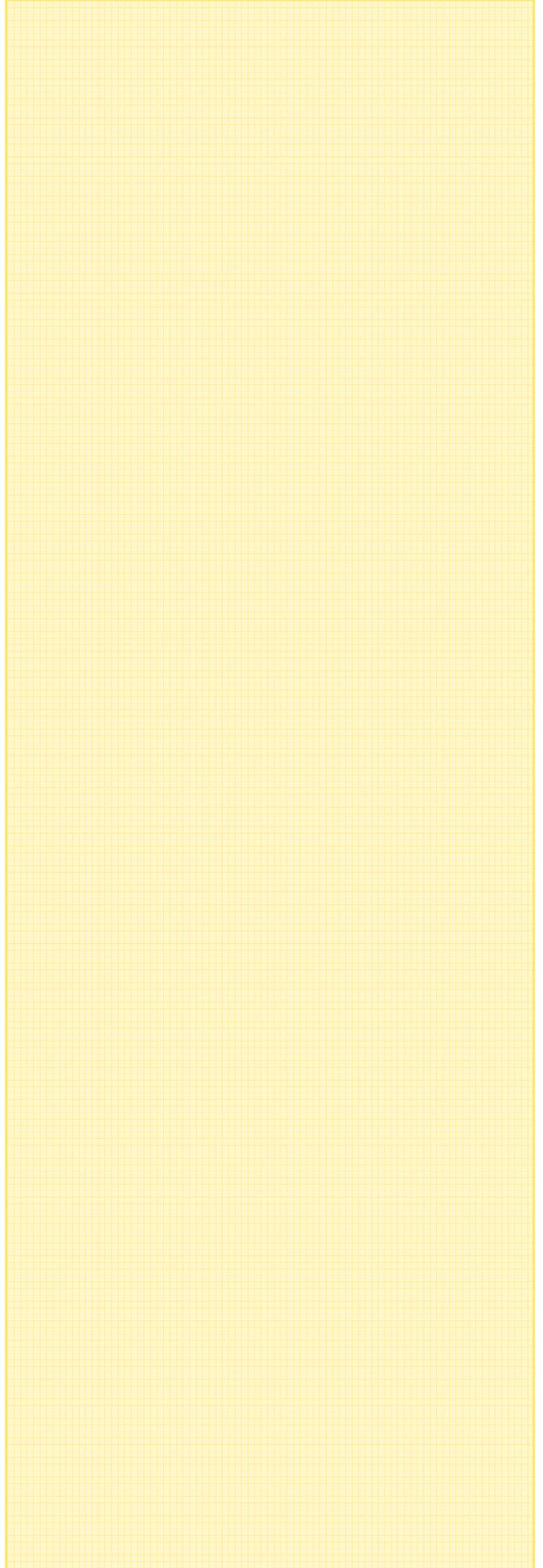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 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피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짚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 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신석정, 「역사」-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신석정 -16B09-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신석정, 「꽃덤불」-

(나)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봉건, 「사랑」-

(다)

1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눈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
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알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
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
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
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

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
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독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
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
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
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
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
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훤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
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츄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
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
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
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
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
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
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
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한후구, 「보리」-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벼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쏘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와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신석정 -2204-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A]

2

바윗돌처럼 퐁퐁 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B]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짚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C]

- 신석정, 「역사」 -

(나)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 들이 살았다
별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늦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 방이 방 한 칸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하릴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백 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몽곳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의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 문태준, 「빈집의 약속」 -

(다)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만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는 듯이 하다가 앞으로 나아와 그 맥을 짚어 보았다. 그러고는 물러나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낮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

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 보니 병은 이미 나왔습니다. 무엇을 더 고치고 싶은지요?”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중략)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이 있어서 살이 찍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보니 기뻐서 살이 찌고, 소리의 가락이 어여쁘지라 즐거워서 살이 찍지요. 이 네 가지를 몸에 지니면 살찌기를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찍니다.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가난한 데다 신분도 낮고 축대로 엮은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와 거친 밥을 먹습니다. 눈은 다섯 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귀는 다섯 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바탕이 갖추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비(良肥)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구려. 내가 진실로 이 네 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하였소. 어찌 이른바 양비란 것이 있단 말이요?” 의원이 말했다.

“㉡**이른바 양비란 것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채우고 인의로 윤택하게 해서 낮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대는 또 초나라 장사꾼의 일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형산(荊山)의 옥** 하나를 썩어 두니 그 값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나라로 갔다가 금은보화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이것과 맞바꿔 돌아왔습니다. 대저 금은보화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부(良富)만은 못합니다. 장사꾼이 그 타고난 부를 잃고 나서는 어느새 밀천 또한 다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두들 초나라 장사꾼을 비웃었지요.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찾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것마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어찌 다만 초나라의 장사꾼 정도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탕이 있어 살찌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음을 가지고 병으로 삼지요.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 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어찌 자기의 형옥(荊玉)을 가지고 금은보화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 김석주, 「의훈」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인식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다)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여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온 민중을 떠올린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온 주체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을 달래꽃은 여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렵פות이 이끌려 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역사를 이어 온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 햇볕, 바람,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 마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마음'은 '보드라운'과 연결되어 애상적 분위기를, (나)에서 '마음'은 '오롯하게'와 연결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② (가)에서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나)에서 '마음'은 '착한 사진사'와 연결되어 타인을 위한 승고한 희생을 강조한다.
- ③ (가)에서 '마음'은 '알 수 없는'과 연결되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나)에서 '마음'은 '하릴없이'와 연결되어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마음'은 '조출하게'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나)에서 '마음'은 '몰아쳐'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를 드러낸다.
- ⑤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나)에서 '마음'은 '늘 빈집'과 연결되어 채워졌다가도 비워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4. (다)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지지 못한 것을 얻으려 하다가 '양비'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한다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실재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생생하게 구체화하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관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해 추상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마음에 '수의'를 걸치고 있다는 표현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빚댄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손의 '핏줄'이 뜨겁다는 표현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촉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는 표현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재하는 대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마음 안의 '고요'가 둥그렇다는 표현은, 화자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한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부 현대시 6-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빠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빠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빠꼭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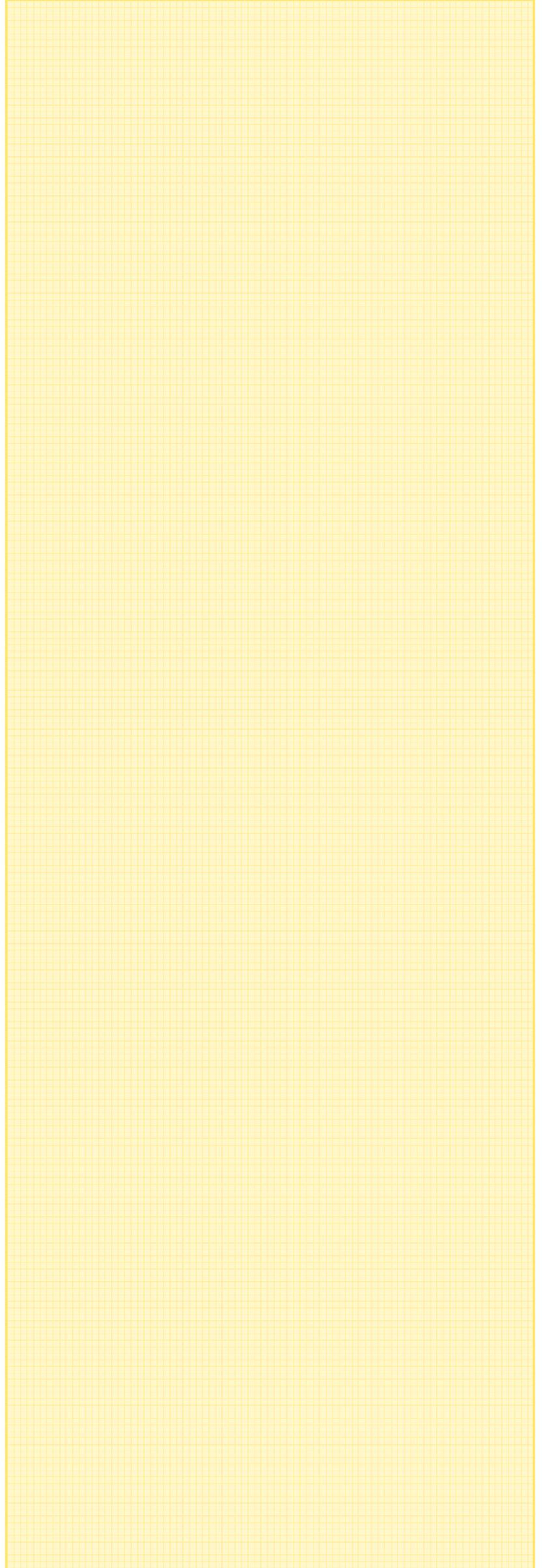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 길뜰: 길이 털 뜰

* 세석: 지리산 정상아래 부근의 지명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송수권 -10수능-

(가)

얇은 사(紗)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A]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길뜰: 길이 덜 든.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몽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넓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라 내리락 모이락 홀으라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사정: 모래톱.

*노화: 갈대.

[B]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 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체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있는 듯’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7-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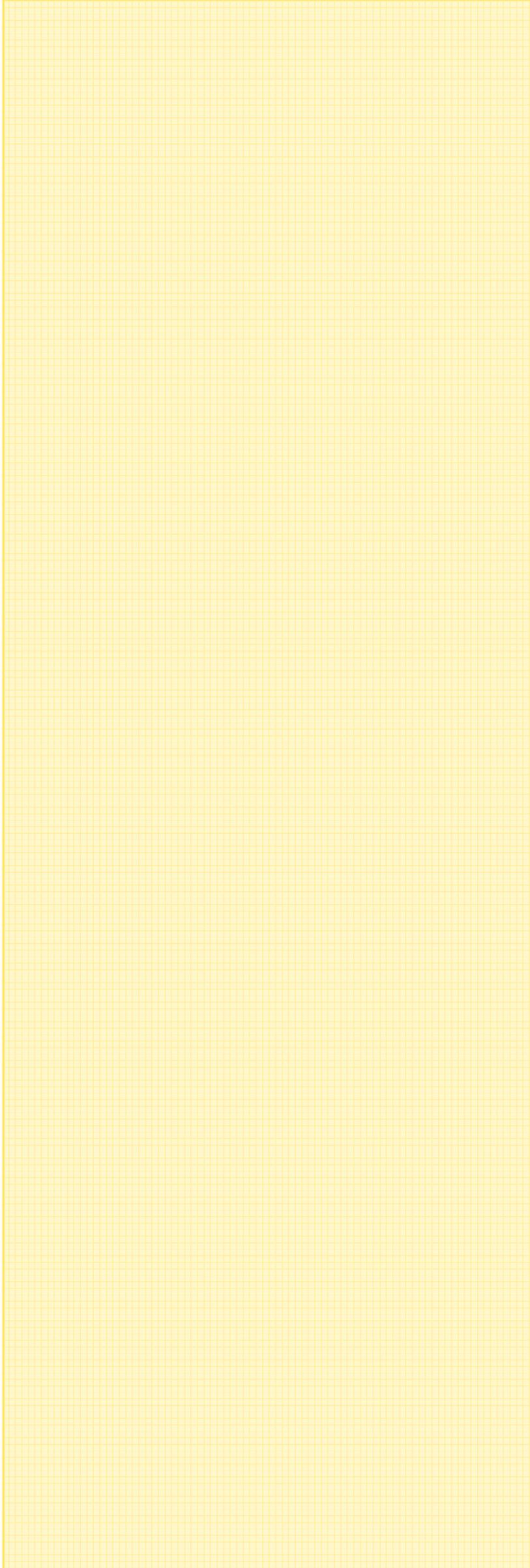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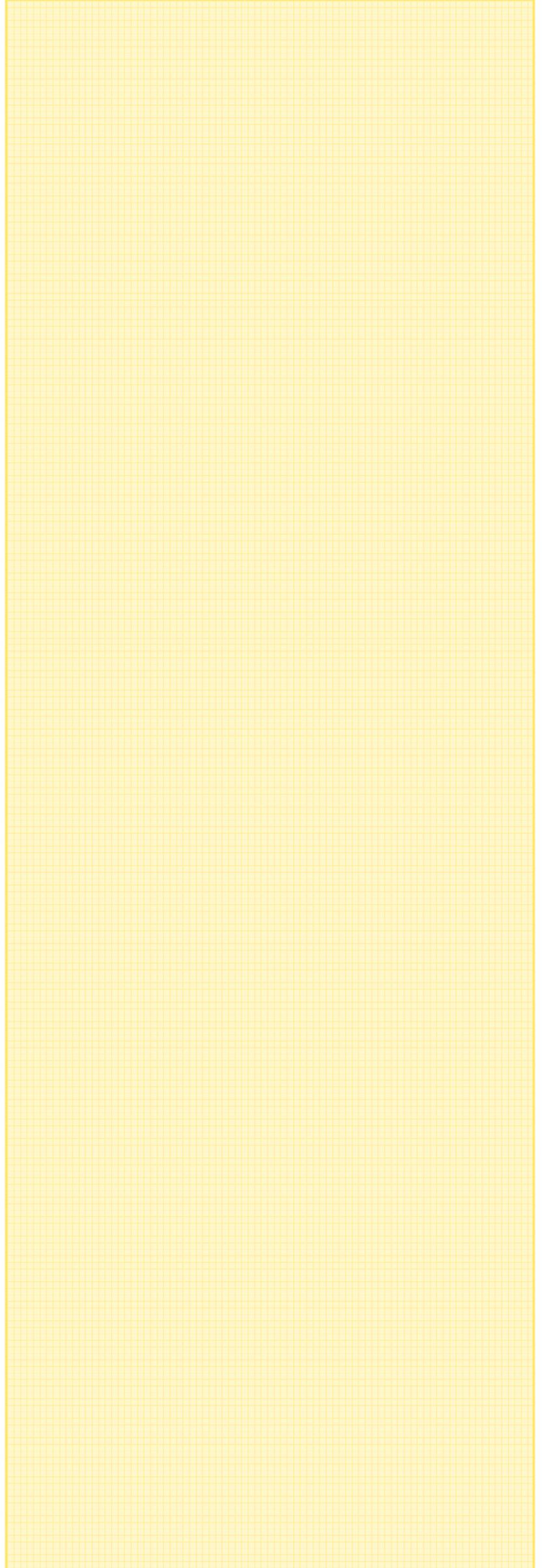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이용악 -0809-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말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있었다

[A]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 러시아의 영토.

*자래운: 키운.

*아무울 만, 니코리스크: 오희즈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설롱한: 춥고 차가운.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
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
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득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
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운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
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읍니다, 벽 [B]
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리는
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박용래, 「월훈(月暈)」-

*월훈: 달무리.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2.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이용악, 「푸른 한 나절」—

*아라사: 러시아.

○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창 땀/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이용악, 「우리의 거리」—

*우라지오: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③ ‘아무일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② 외판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이용악 -2210 -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A]

돌 위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패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

[B]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낫선 곳으로 갔더니라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이
까치 둥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림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림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이 돌아오라”

[C]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D]

이 며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E]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 오들막 :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 강낭콩.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후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 칸텔라 :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1.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B] :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후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협상국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이용악 15B07-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떨어질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해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거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켜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짜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신경림, 「목계장터」-

1.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나타낸다.
- ② ㉡: 가시내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나타낸다.
- ③ ㉢: 가시내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
- ④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 ⑤ ㉤: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나타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는 유랑하는 삶의 고통과 이에 대응하는 모습,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 등을 그리고 있고, (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

- ① (가)의 '봄을 불러줄게'에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계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 ③ (나)의 '가을별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군.
- ④ (가)의 '눈포래', '얼음길'과 (나)의 '산서리', '물여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내는군.
- ⑤ (가)의 '자옥도 없이 사라질 계다'와 (나)의 '짐부리고 앉아 쉬는'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이용악 - 1210-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든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켜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 얼구며: '얼리며'의 함경도 방언.
- * 불술기: '기차'의 함경도 방언.

(나)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회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다)

㉠자세*에 북방 서리 무섭게 쳐도
남천에는 따뜻한 기운 통했지.
물과 구름 밖을 외롭게 날다가
잘못하여 그만 그물에 걸렸네.
남의 뜻에 따라 마시고 쪼며
갈 길 막혔음을 한탄하며 사네.
포구 모래밭 달빛 아래 잠들고
내 긴 물가 갈숲에서 놀았겠지.
㉡때 지어 먼 바다를 건너고
줄 이어 먼 바람에 울었겠지.
사냥꾼 화살을 길게 시름하다
겨우 막요*의 활만 피했구나.
본성도 다스림이 이와 같으니
태어날 때부터 본디 공평한 것 아니라네.
무리를 생각하는 게 너 홀로 인색했으니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
미물에 있어서 비록 모습 다르지만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와 같겠지.
어느 날에야 여섯 나래를 길러
구름 하늘로 잘 날아가려나.

紫塞胡霜重
南天暖氣通
孤飛水雲外
誤墮罽羅中
飲啄隨人意
棲遲恨路窮
浦沙眠夜月
煙渚戲蘆叢
接翅飜遙海
聯行叫遠風
長愁弋者矢
徒避莫徭弓
繕性能如此
生身本不公
念群渠獨畜
無患爾何豐
在物雖形異
懷鄉與我同
何當養六翮
好去向雲空

-이달,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鴈)」-

- * 자세: 만리장성을 가리키는데, 기러기들이 여기서 여름을 남.
- * 막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부족.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통해 얻은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이 처한 상황과 관련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⑤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 있다.

2.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에서는 함경도 사내인 '나'와 전라도 가시내인 '너'를 등장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① 1연에서는 '눈'과 '얼굴'의 모습을 통해 '너'가 고향인 전라도에서 겪었던 비참한 삶이 부각되고 있다.
- ② 3연에서는 북간도까지 오게 된 '나'와 '너'의 슬픈 사연을 '가난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4연에서는 '너'가 떠나면 전라도에서 북간도로 오는 장면이 '나'의 상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5연에서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너'를 위로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6연에서는 '사라질 게다'의 반복을 통해 '나'의 안타까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몸소 보거나 행했던 체험은 구체적인 시공간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체험에 대한 기억은 그 시공간의 상황이나 분위기와 결부되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기억은 새로운 시공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강하게 촉발되어, 과거의 체험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 ① 1연의 '지나게 되었다'와 '한 사내가 보였다' 등을 통해, 1연의 체험이 '나'가 직접 행하거나 보았던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1연의 어두운 '거리'에서 '회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가는 '건물'의 이미지를 통해, 1연의 '나'가 느끼는 시공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
- ③ 1연의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의 상황으로 인해, '나'의 성찰이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2연의 '밤', '텅 빈 사무실' 등은, 2연의 '나'에게 1연의 시공간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어.
- ⑤ 2연의 '텅 빈 사무실'에 있는 '나'는, 1연의 '좁고 큰 방'에 있던 '사내'를 떠올리며 그 '사내'와 자신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있어.

4. <보기>는 '본성'과 관련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어나 시구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본성(本性)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바탕을 뜻한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그물에 걸렸네'는 기러기가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 ② '남의 뜻'에 따라 사는 상황은 기러기가 '본성'에 맞게 살지 못하는 처지를 나타낸다.
- ③ '모래밭'과 '갈숲'에서 노니는 모습은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에는 기러기가 '본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한 이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나타난다.
- ⑤ '어느 날에야 여섯 날개를 길러 / 구름 하늘로 잘 날아가려나'에는 기러기가 '본성'을 회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대상과 화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대상이 지니고 있는 아픔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과거에 대한 화자의 회상이, ㉡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전망이 나타나 있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대상에게서 거리감을, ㉡은 화자가 대상에게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다.

6. ㉠ ~ ㉢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추상적인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비유와 반복을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각적 이미지로 대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7-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배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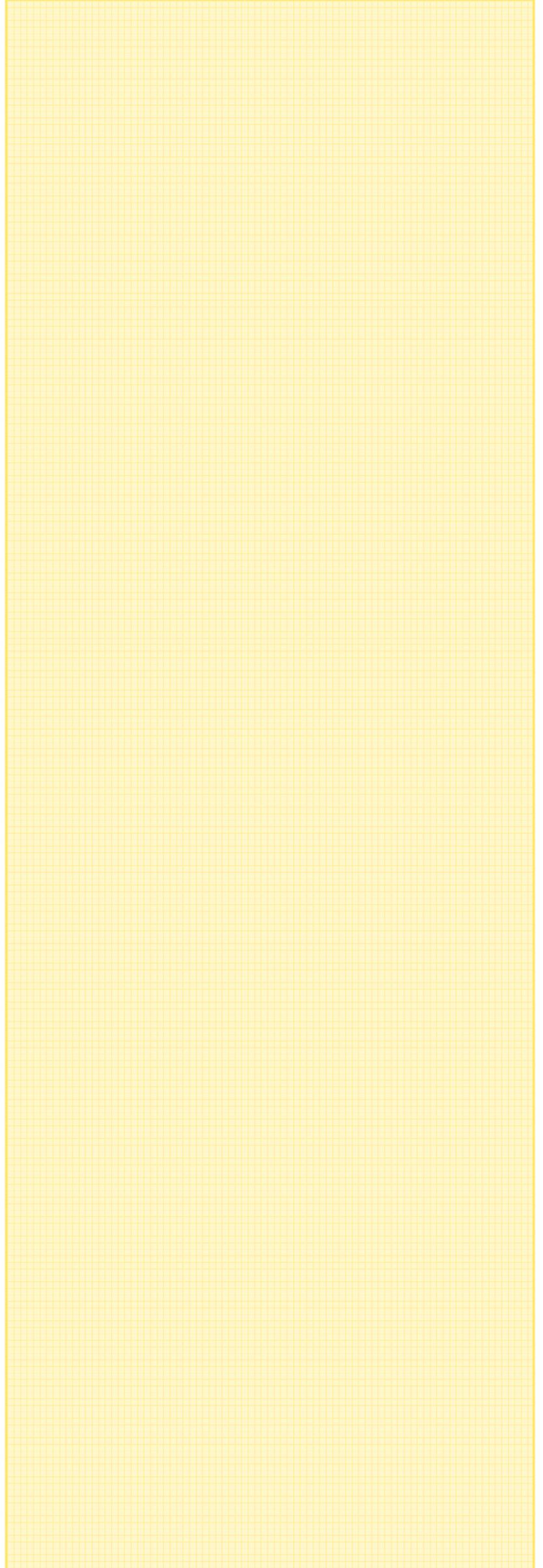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신경림, 「나무」-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신경림 - 14B09-

(가)

나의 지식이 독한 삶의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A]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B]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C]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신경림, 「농무」-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2.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과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신경림 - 0909-

(가)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
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닳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잎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밧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다)

사립을 젖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
뉘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뉘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뉘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양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홍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값을 범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좃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안조원, 「만언사」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한민: 한가로운 백성.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4.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5.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6.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 < 보 기 > —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엮히는데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21224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신경림 - 2210 -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A]

돌 위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패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

[B]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낯선 곳으로 갔더니라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이
까치 둥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림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림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이 돌아오라”

[C]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D]

이 며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E]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 오들막 :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 강낭콩.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후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 칸텔라 :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1.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향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B] :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후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협상국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신경림 - 23학년도 사관 -

(가)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잎도 머리카락도 형곶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
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
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
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백석, 「 모닥불 」-

- * 새끼오리: 새끼줄 조각. ‘오리’는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 * 갓신창: 가족신 바닥에 댄 창. ‘갓신’은 ‘가족신’의 옛말
- * 개니빠디: 개의 이빨. ‘니빠디’는 ‘이빨’의 평북 방언.
- * 너울쪽: 널빤지.
- * 닭의 깃: 닭의 깃털. ‘깃’은 ‘깃’의 방언.
- * 짚검불: 지푸라기.
- * 재당: 향촌의 최고 어른에 대한 존칭.
- * 초시: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 문장(門長): 한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 * 갓사둔: 새사둔.
- * 몽둥발이: 몽둥발이.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나)

눈 위에 주름 귀 밑에 물사마귀
 다들 한결같이 낯설지가 않다
 아저씨 워태까지 가신대유
한강만 넘으면 초면끼리 주고받는다
 맥주보다 달빛에 먼저 취한다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찻간에 가득한 **고향의 풀냄새**
 달빛에서는 귀뚜라미 울음도 들린다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순대면서유
 쫓기고 시달린 삶이 꼭 꿈결같아
 터진 손이 조금도 쓰리지 않고
 감도 빼붙었겠지유 인제
 ㉡이 하루의 행복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도 적지 않으리
 여봐유 방앗간집 할머니 아니슈
 돌려 세우면 처음 보는 시골늙은아낙
선물 보따리가 달빛 속을달려가고
 너무 똑같아 실례했슈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낯선 데가 하나도 없는 귀성열차

- 신경림, 「 귀성열차 」-

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겹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가)와 (나)는 이질적 존재들이 어울리는 순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들은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무화(無化)시키고 하나의 동질성을 획득하면서 어울림의 순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매개체를 통하여 혹은 시공간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가)의 1연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운 각양각색의 사물들은 ‘타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모닥불’을 만들어낸다.
- ② (가)의 2연에서 ‘재당’과 ‘초시’로부터 ‘큰개’와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가 무화되어 동질성의 차원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나)의 ‘귀성열차’는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낯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아우르는 동질화의 공간이다.
- ④ (나)의 ‘한강’은 ‘고향의 풀냄새’와 ‘귀뚜라미 울음’으로 충만한 공간이 ‘선물보따리’의 종착역으로 인식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 ⑤ (나)의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순대면서유’와 같은 말은, 사람들 사이의 이질성과 심리적 거리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 모두에는 대상의 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 ② ㉠과 ㉡ 모두에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과 ㉡ 모두에서 화자의 인식이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는 화자가 느끼는 비애의 정서가, ㉡에는 화자가 잠겨 있는 안도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⑤ ㉠에는 화자 자신의 현재에 대한 성찰이, ㉡에는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8-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金盞花)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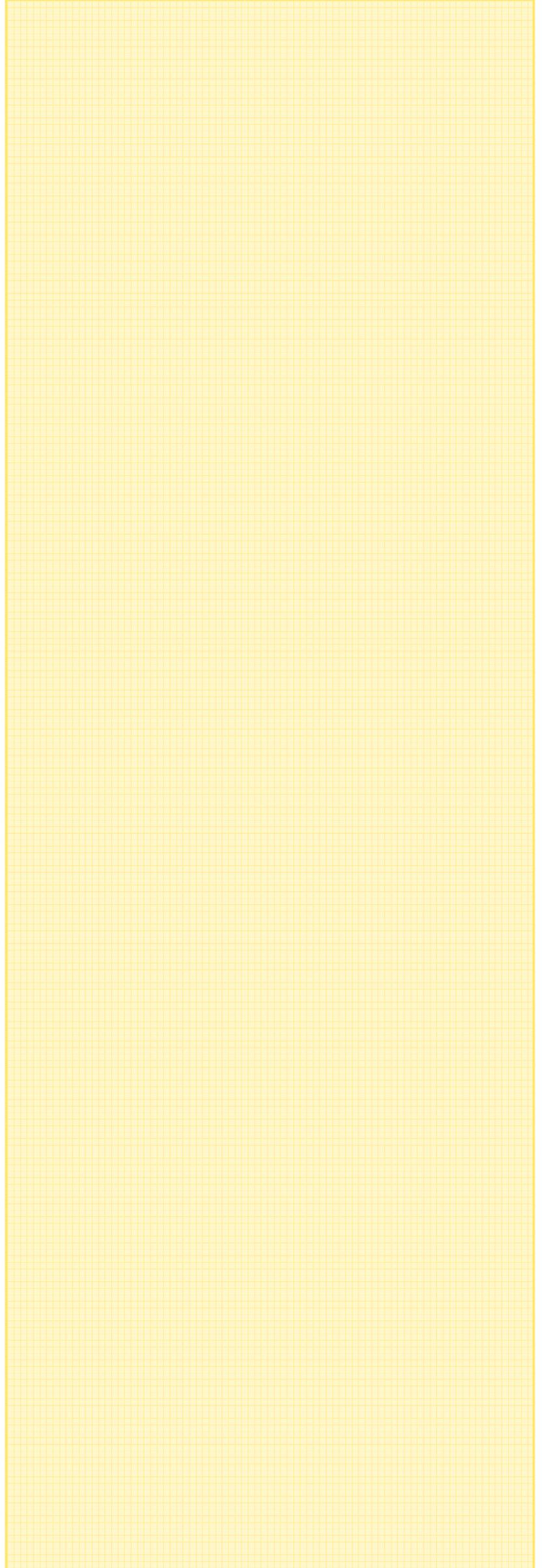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윤동주, 「병원」-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윤동주 -1709 -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과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꺾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뿔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윤동주 -1309 -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오세영, 「자화상·2」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 ──┐
┌ ──┐
[A] ┌ ──┐
┌ ──┐
┌ ──┐
[B] ┌ ──┐
┌ ──┐

┌ ──┐
┌ ──┐
[C] ┌ ──┐
┌ ──┐
┌ ──┐
[D] ┌ ──┐
┌ ──┐
┌ ──┐
[E] ┌ ──┐
┌ ──┐

-김기택, 「멸치」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단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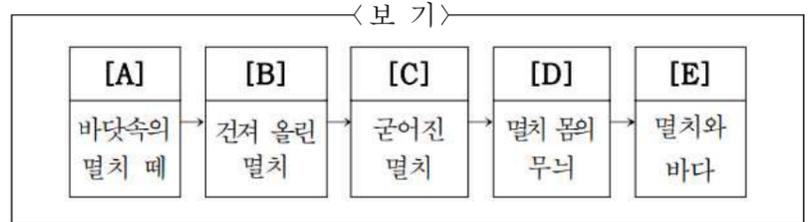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들어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3.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과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윤동주 -11수능 -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나)

떡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똥거린다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김명인, 「그 나무」-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A]

[B]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군산 목은장’과 ‘선체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 ‘눅된 나무’가 피워 낸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눅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윤동주 - 0806 -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습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A]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
[B]
└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

(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2.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3.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6.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을쏘냐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윤동주 -2310 -

(가)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나)

큰일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천기누설이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 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제 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랴.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에 지은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

세상에 못 맷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떠꺼머리, 너는 ㉢무엄하게도 알아 버렸구나.

길 비켜라.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준엄한 힘 앞에
세상의 지위쯤은 한낱 재미에 불과하리.

지금은 오후 두 시,
그대의 선덕은 ㉤이미 온몸이 흔들려
다보탑 아래 깜박 잠든 지귀에게 가 있느니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
네 가슴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

-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마지막 연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준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물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② ㉡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을 활용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에 대한 질책을 드러낸다.
- ④ ㉣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 ⑤ ㉤을 활용하여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해 단념한 상황을 드러낸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가)는 토끼가 유혹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가)는 두 설화를 재구성하여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노력과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가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그를 동정하여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변용하여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화를 연결한 것으로, '토끼'는 일제 강점기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귀토지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목에 멧돌을 달고'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귀의 마음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큰 불이 일어서'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는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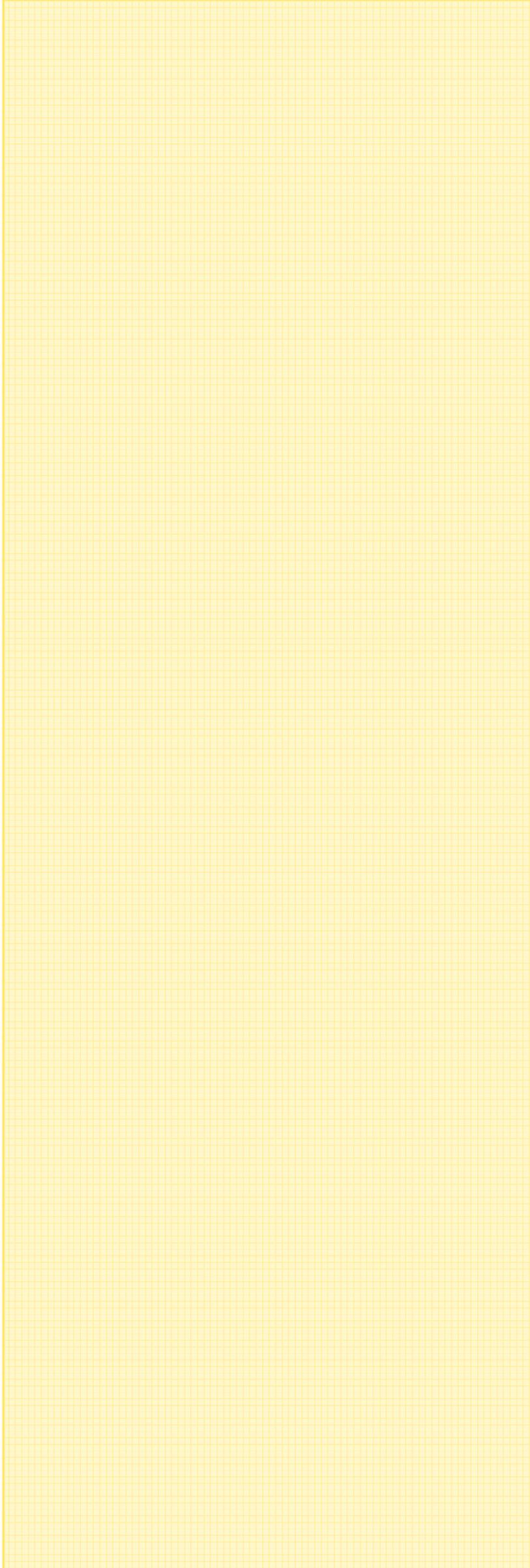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8-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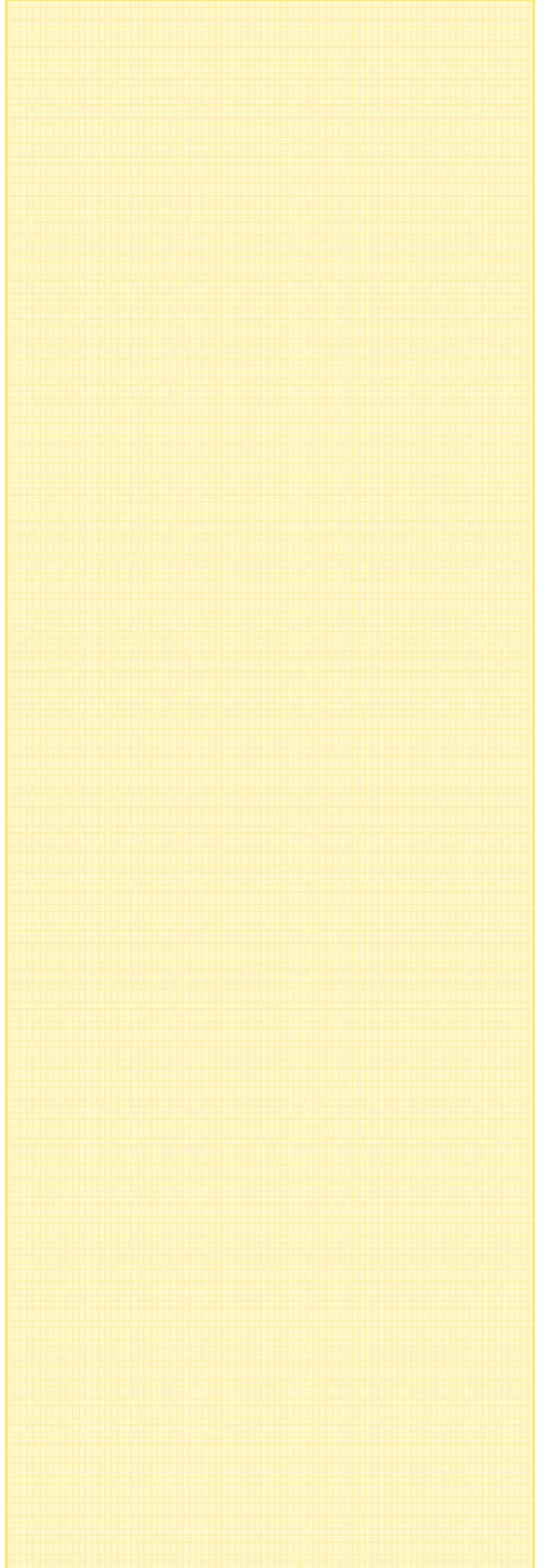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김기택, 「벽」-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기택 -16B수능 -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새벽을 한다.

-박남수, 「아침 이미지1」 -

(나)

┌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B]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C]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D]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E]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김기택, 「플라타너스」 -

1.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 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혁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기택 - 1309 -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오세영, 「자화상·2」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 ──┐
┌ ──┐
[A] ┌ ──┐
┌ ──┐
┌ ──┐
[B] ┌ ──┐
┌ ──┐

┌ ──┐
┌ ──┐
[C] ┌ ──┐
┌ ──┐
┌ ──┐
[D] ┌ ──┐
┌ ──┐
┌ ──┐
[E] ┌ ──┐
┌ ──┐

-김기택, 「멸치」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단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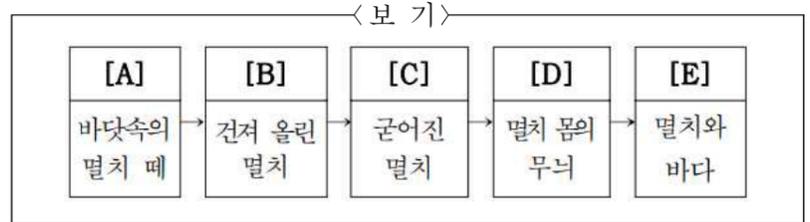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들어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3.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과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9-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것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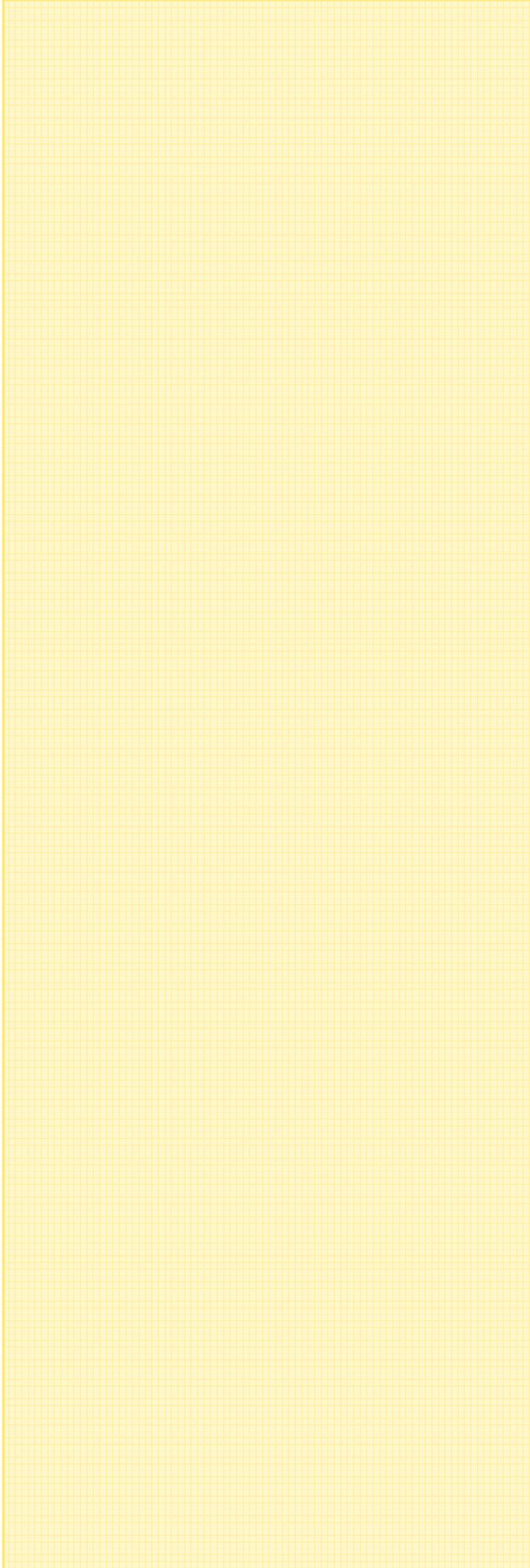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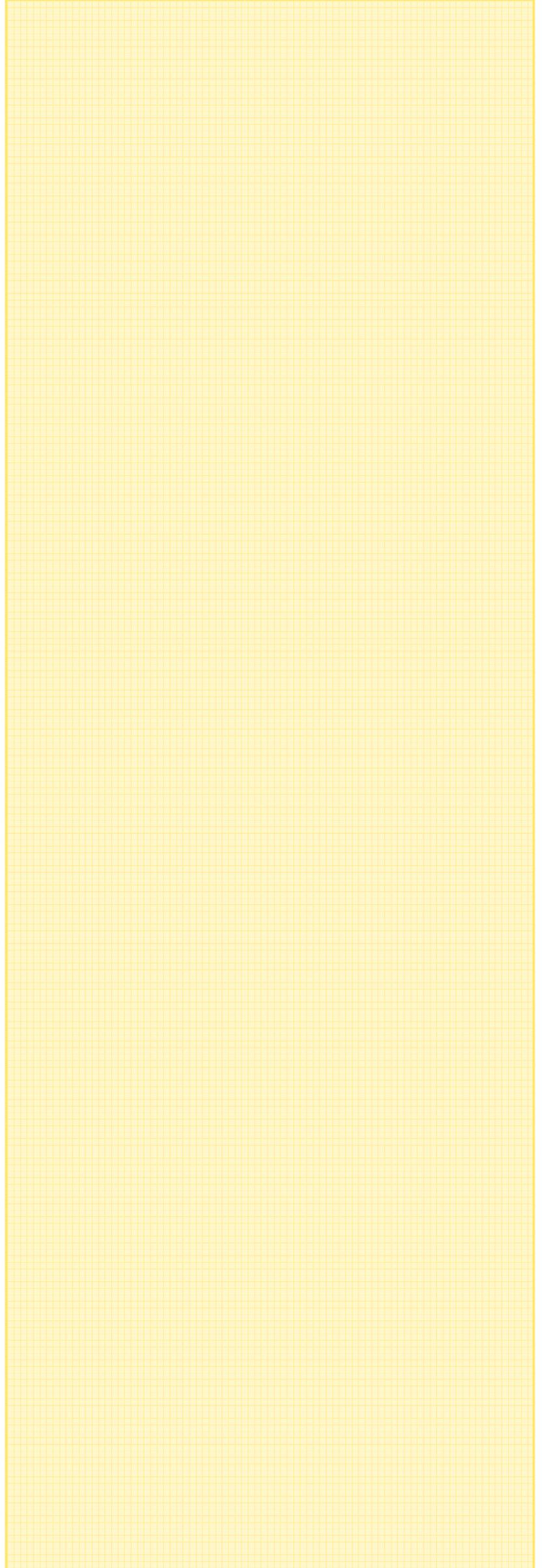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김현승, 「눈물」-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현승 - 1809 -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가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쫓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궁거워 : 궁금하여.

18학년도긴 한데 이거랑 2506 말곤 연계 작품이 없어서 수록했습니다.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뭇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9-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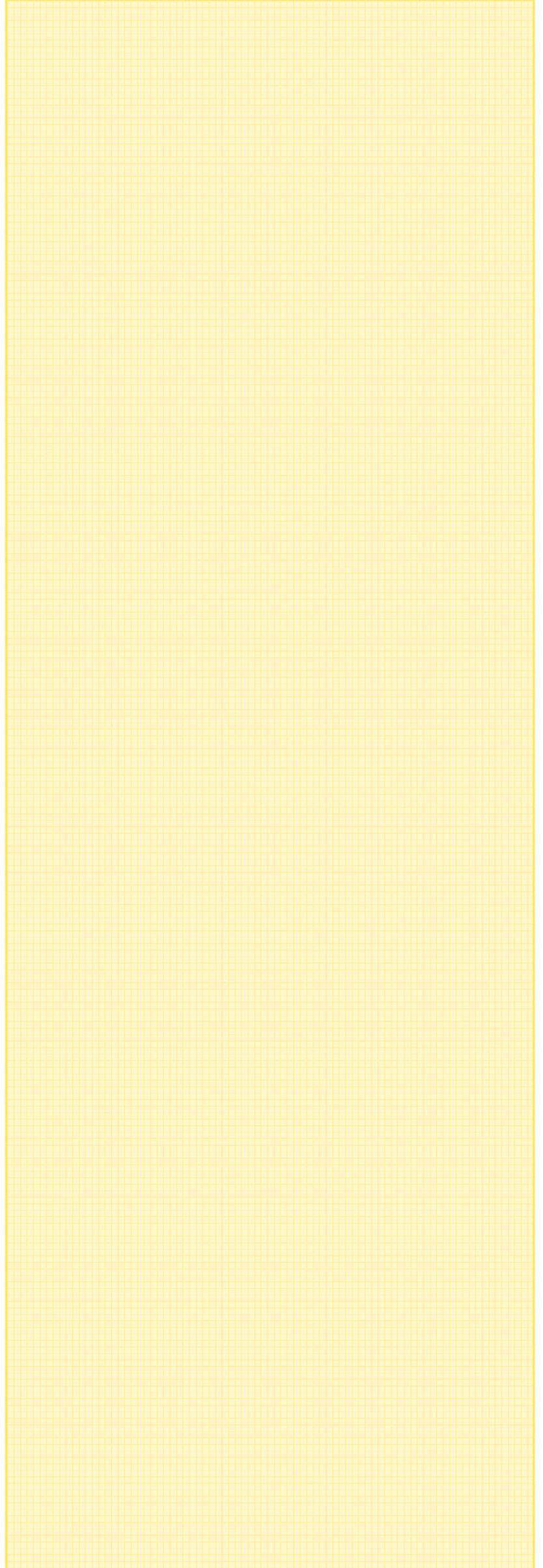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김춘수, 「강우」-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춘수 - 1106-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냇치 지짐이 땀싸한 냄새가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김춘수, 「강우(降雨)」-

(나)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떠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시다
 어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계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시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이성복, 「서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3.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4. <보가>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때문이야. 화자는 '당신'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10-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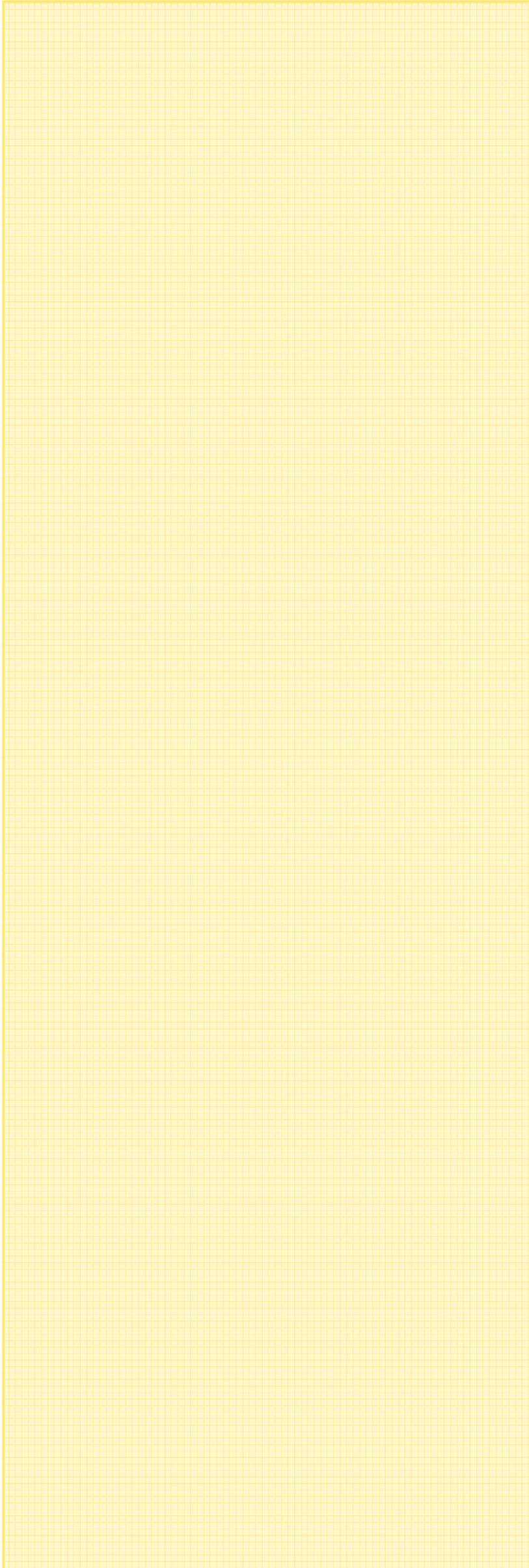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석경: 유리로 만든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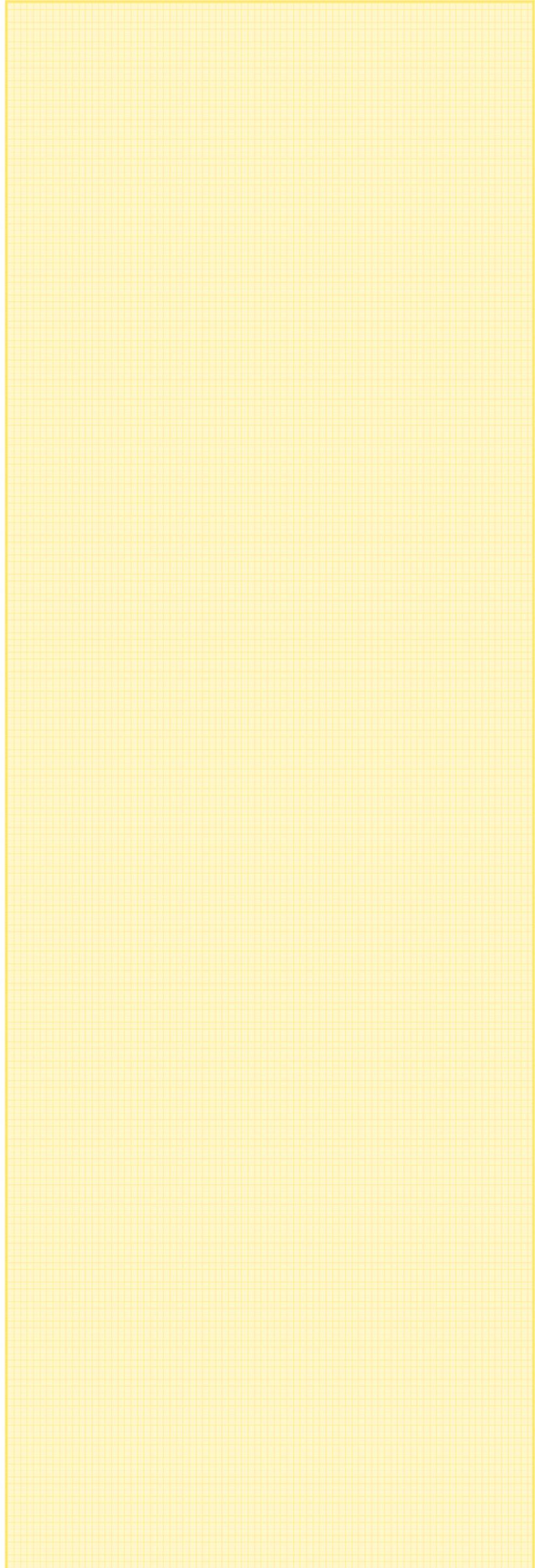
* 조로: 포르투갈어인 '조로(jorro)'에서 유래한 말로, '물뿌리개'를 의미함.

-김수영, 「파밭 가에서」-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김수영 - 17수능 -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면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
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
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
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함이정: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듩직한 아들 하나 있으
면 얼마나 좋을까.....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그러다가 너를 느꼈고.....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
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
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처음부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뻘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
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
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아버님 목소리가 어찌
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
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쫓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동연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온
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밖에는 왜?

동연: 말다툼 때문에.....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함묘진: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
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
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
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얼굴 뒤엔 구름이.....구름 뒤엔 하늘 [B]
이..... (물을 떠서 마신다.)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다.)

함이정: 오빠.....뭘 하는 거죠?

서연: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물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그래요, 오빠.....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㉔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㉕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1.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 무대 상연을 전체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㉔~㉕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㉔: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㉕: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㉔: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㉕: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6.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수영 -13수능-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11」-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
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이시형, 「마음의 고향 6-초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시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 ①(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 ②(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해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
- ③(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써,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④(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 ⑤(가)의 대상이 지닌 숭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3.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폭포'의 낙하가 지닌 항상성을 나타낸다.
- ② ㉡: '폭포'가 지닌 긍정적 속성들이다.
- ③ ㉢: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 ④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 ⑤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수영 -08수능-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동」-

(나)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소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테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2.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과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체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김수영 - 2203 -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칸,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짚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떼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섯*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 딜용배기 :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 나긋손 : '저녁때'의 방언. * 섯 :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 그 방을 생각하며 」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① (가)는 ‘권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썩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계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수영 - 2410 -

(가)

팽이가 돈다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 살림을 사는 아해들도 아름다웁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젊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 마치 별세계(別世界)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김수영, 「 달나라의 장난 」-

(나)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딸 인혜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뗏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행구고

㉤푸른 뗏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 복효근, 「 대숲에서 뉘우치다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형 표현으로 현장감을,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상을 전환하여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나'는 땡이가 도는 것을 보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의 고단한 생활과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성찰하고 있다. (나)의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딸아이와 대숲에서 경험한 일을 계기로 되돌아보며,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과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에서 '나'의 생활이 고단함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땡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와 '땡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에서 '나'가 땡이가 도는 모습을 보며 주체성이 결여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에서 '나'가 땡이가 도는 것으로부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땡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를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하는 말에서 '나'가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에서 '나'가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잊을 만큼 땡이를 바라보는 일에 열중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땡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10-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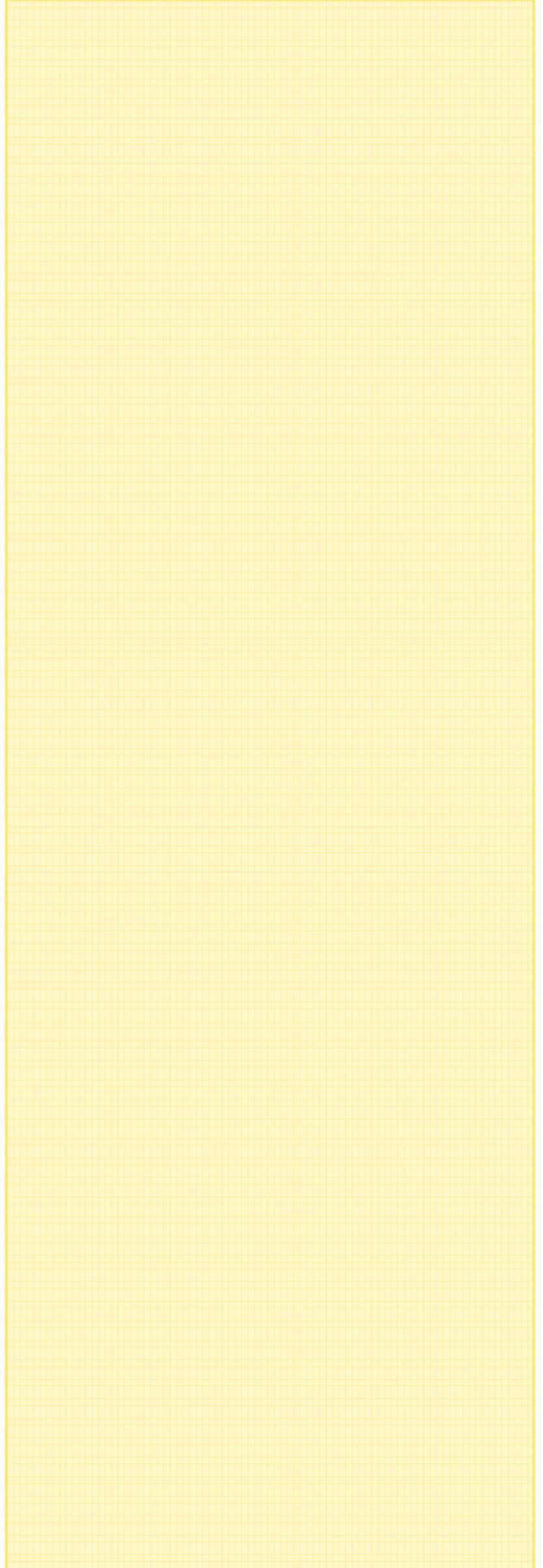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고
뭐한다고.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라고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라고
뭘 소용이라고.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저 달 금방 저 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텅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한다고, 뭘 소용이라고.

-김용택, 「들국」-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김용택 - 1706 고2 -

(가)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뭘 헛것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저 달 금방 저물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텅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헌다요, 뭘 소용이다요

-김용택, 「들국」-

(나)

사람이 벽(癖)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다. 벽이란 글자는 질병과 치우침으로 이루어져 '편벽된 병을 앓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벽이 편벽된 병을 뜻하지만 고독하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전문 기예를 익히는 것은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김 군이 화원(花園)을 만들었다. 김 군은 ㉠꽃을 주시한 채 하루 종일 눈 한번 꿈쩍하지 않는다. 꽃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여 누운 채 꿈쩍도 않고 손님이 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 그런 김 군을 보고, 미친놈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를 비웃는 웃음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웃음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고 생기가 짝 가시게 되리라.

김 군은 만물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김 군의 기예는 천고(千古)의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하다. ㉡「백화보(百花譜)*」를 그린 그는 '꽃의 역사'에 공헌한 공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향기의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위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벽의 공훈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아아! 벌벌 떨고 게으름이나 피우면서 천하의 대사를 그르치는 위인들은 편벽된 병이 없음을 빼기고 있다. 그런 자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을사년(1785) 한여름에 초비당(蒼翊堂) 주인이 글을 쓴다.

-박제가, 「백화보서(百花譜序)」-

* 백화보: 피고 지는 다양한 꽃과 잎사귀의 모습 등을 그려놓은 책.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어조가 변화하고 있다.
- ② (나)에는 대상의 행적을 제시하며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에는 (나)에서와 달리 현실을 초월하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가)에서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그리운 입에 대한 애뜻함과 이별의 상황에 대한 막막함을 함께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입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하여 강조한다. 동시에 특정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 자신의 정서나 처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 ① ‘단풍’과 ‘물빛’ 등의 자연물과 대비하며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하얀 손짓’은 ‘당신’을 향한 화자의 애뜻한 정서를 자연물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초생달’은 ‘그대 얼굴’을 떠올리며 이별의 상황에 막막해 하는 화자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군.
- ④ ‘막막한 어둠’은 ‘마른 지푸라기’나 ‘허연 서리’가 환기하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서리밭에 하얀 들국’을 통해 부정적 상황 속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3. (나)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같은 벽의 공흔을 얻기까지 ㉡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였다.
- ② ㉠을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통해 ㉡에 대한 편벽된 병을 극복하게 되었다.
- ③ ㉠에 대한 편벽된 병이 ㉡과 같은 벽의 공흔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 ④ ㉠에 남다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에 대한 편벽된 병이 작용하였다.
- ⑤ ㉠을 탐구하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이 ㉡과 같은 벽의 공흔을 이루도록 이끌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11-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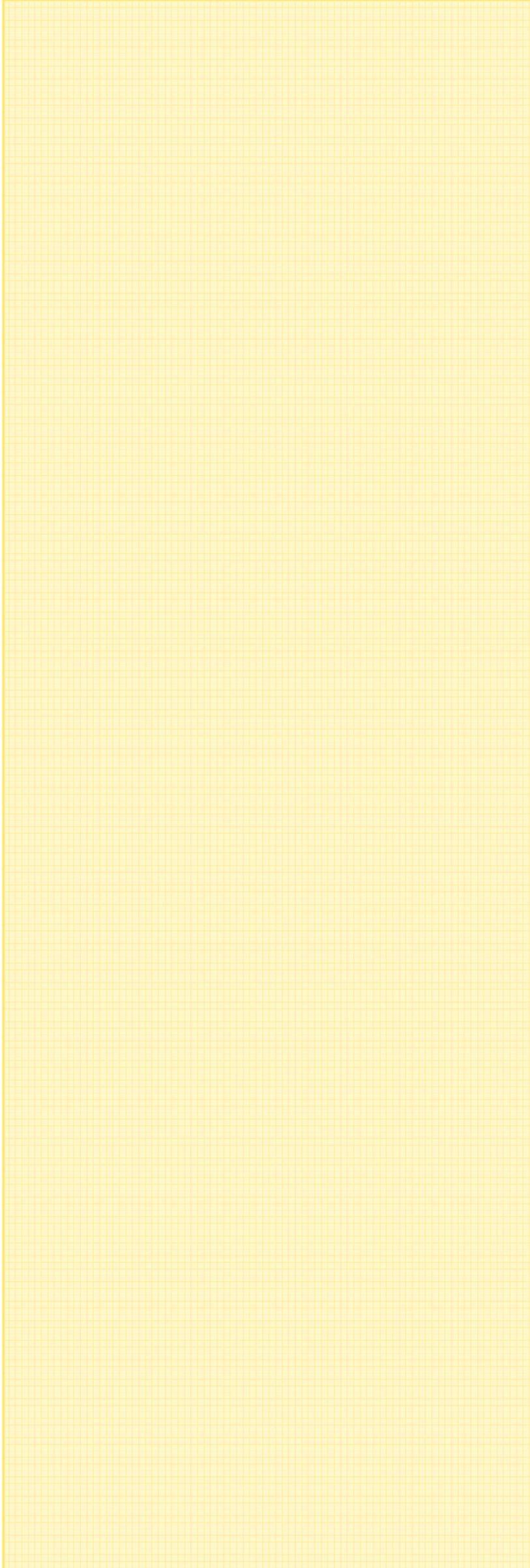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 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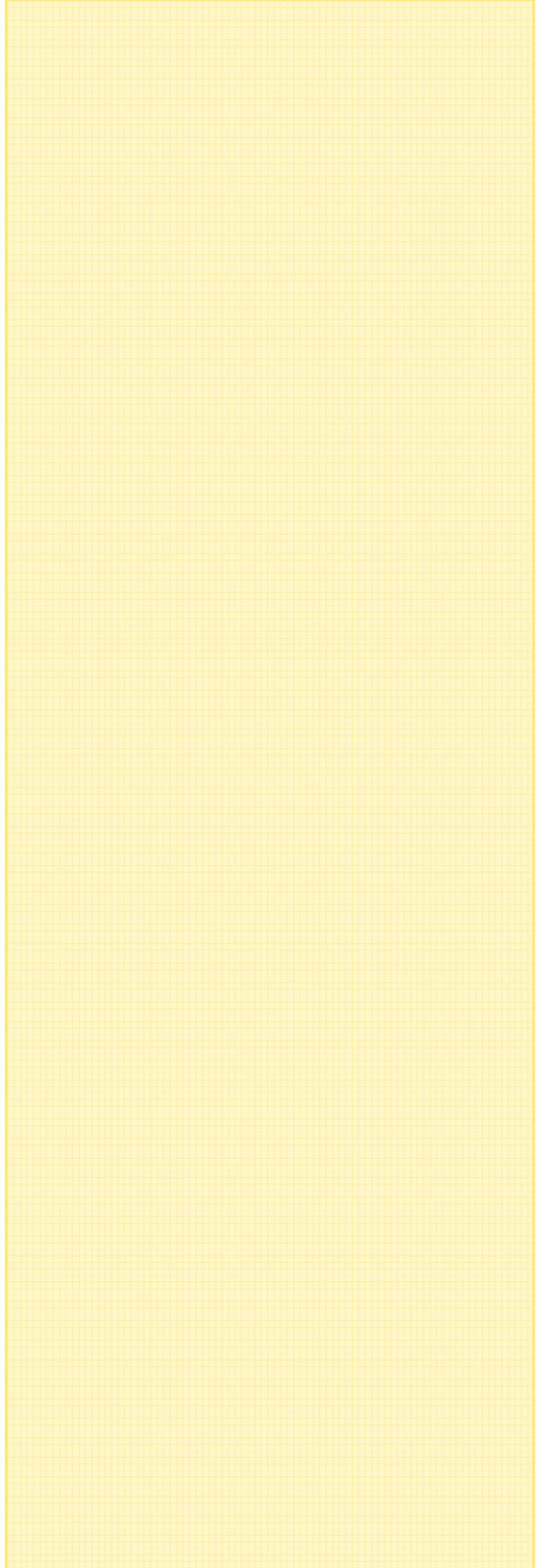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 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문정희, 「흙」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문정희 - 2310 -

(가)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나)

큰일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천기누설이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 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제 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랴.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에 지은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

세상에 못 맷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떠꺼머리, 너는 ㉢무엄하게도 알아 버렸구나.

길 비켜라.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준엄한 힘 앞에
세상의 지위쯤은 한낱 재미에 불과하리.

지금은 오후 두 시,
그대의 선덕은 ㉤이미 온몸이 흔들려
다보탑 아래 깜박 잠든 지귀에게 가 있느니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
네 가슴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

-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마지막 연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준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물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② ㉡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을 활용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에 대한 질책을 드러낸다.
- ④ ㉣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 ⑤ ㉤을 활용하여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해 단념한 상황을 드러낸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가)는 토끼가 유혹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가)는 두 설화를 재구성하여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노력과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가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그를 동정하여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변용하여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화를 연결한 것으로, '토끼'는 일제 강점기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귀토지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목에 멧돌을 달고'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귀의 마음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큰 불이 일어서'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는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문정희 -1704-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역*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싫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역: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찢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찢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C]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D]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D]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 문정희, 「찢레」 -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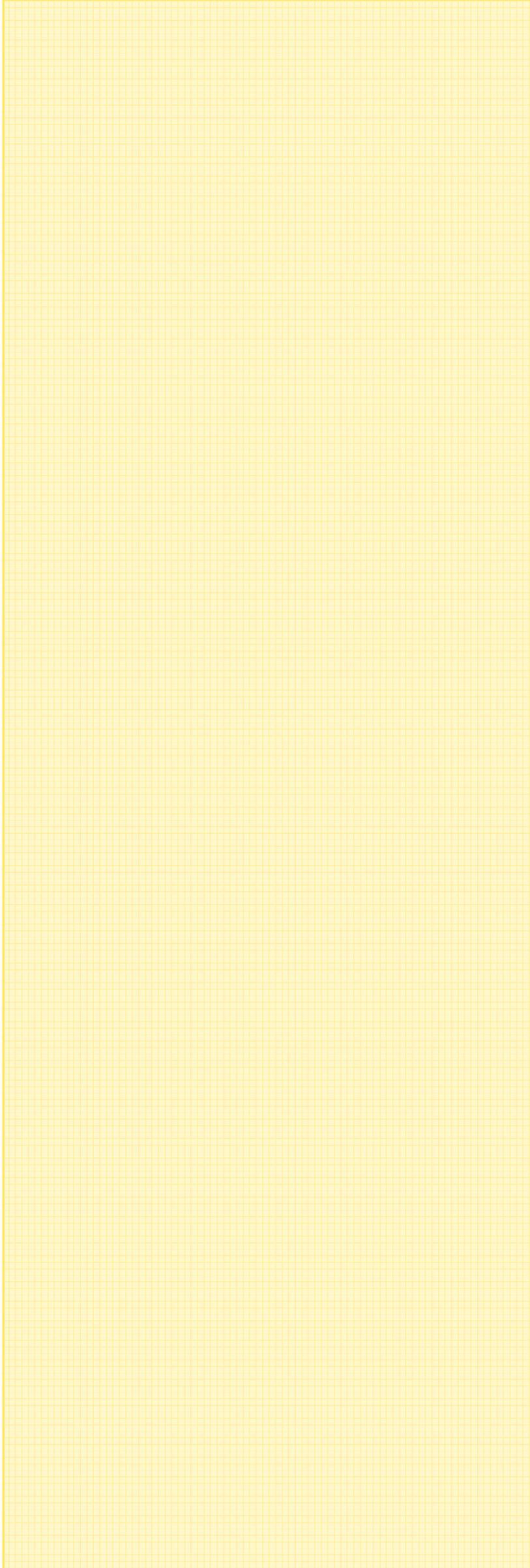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살에 웅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나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꺾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워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 선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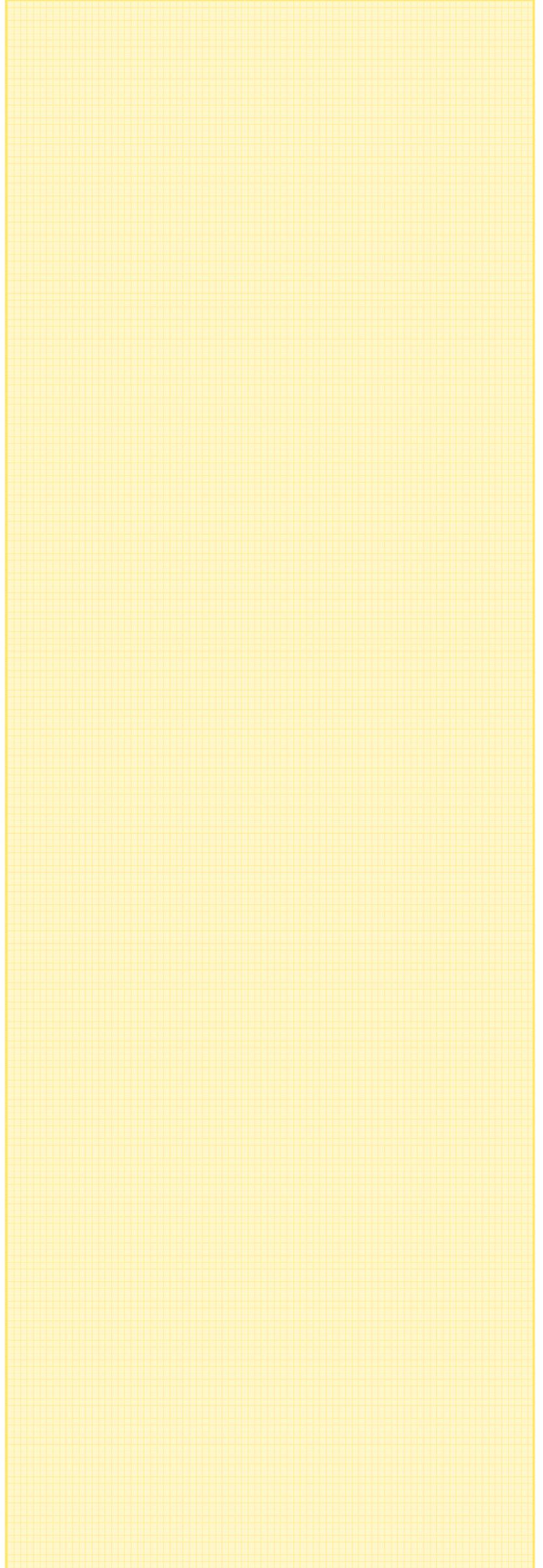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때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복효근 - 2410 -

(가)

팽이가 돈다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 살림을 사는 아해들도 아름다웁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젊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 마치 별세계(別世界)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김수영, 「 달나라의 장난 」-

(나)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딸 인혜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뗏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행구고

㉤푸른 뗏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 복효근, 「 대숲에서 뉘우치다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형 표현으로 현장감을,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상을 전환하여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나'는 땡이가 도는 것을 보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의 고단한 생활과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성찰하고 있다. (나)의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딸아이와 대숲에서 경험한 일을 계기로 되돌아보며,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과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에서 '나'의 생활이 고단함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땡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와 '땡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에서 '나'가 땡이가 도는 모습을 보며 주체성이 결여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에서 '나'가 땡이가 도는 것으로부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땡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를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하는 말에서 '나'가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에서 '나'가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잊을 만큼 땡이를 바라보는 일에 열중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땡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일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복효근 - 22사관 -

(가)

- ┌ 오동은 고목이 되어갈수록
└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 [A] 오동뿐이라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가 그렇다
- ┌ 잘 마른 텅 빈 육신의 나무는
└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
- ┌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라
└ 수많은 구멍으로 빛어진 삶의 빈 고목에
- [B] 어느 날
- ┌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거문고 소리 들리리니
└ 거문고 소리가 아닌들 또 어떠랴
- [C]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다면
- ┌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 바람은 쉽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갈날처럼
- [D] 햇볕 뜨거워 이승의 한낮은
- ┌ 육탈*하기 좋은 때

[E] 잘 마른 구멍 하나 가꾸고 싶다

- 복효근, 「 고목 」-

* 육탈: 살이 썩어 뼈만 남음.

(나)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 누에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간표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2.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자연물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 ② [B]: [A]에서 주목한 자연 현상을 유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 ③ [C]: [B]에 나타난 삶에 대한 이해가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 ④ [D]: [C]에서 얻은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회한이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E]: [A]~[D]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화자의 소망으로 집약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존재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 성숙한 존재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수반한다. 그리고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때,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시련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실현을 돕는 환경이 된다. (가)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시련에 대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 낸 시련을 견뎌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구멍'은 '피리새'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동굴'은 '하늘백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한 마리'가 '세 들어 새끼칠 수있'는 것과 (나)에서 '누에 의왕'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삶'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구멍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날갯짓'을 시작하기 위해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한낮'은 '상처'가 후벼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긴 밤'은 '고통'스러운 '연금술'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육탈'은 '잘 마른 텅 빈 육신'을 위한 비움의 과정인 반면, (나)에서 '변모'는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복효근 - 15B03 -

(가)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서정주, 「추천사」-

(나)

- [A]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 울통불통 뿌리 나무의 발등
 └─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
 └─ 군데군데 굳은살에 웅이가 박혔다
 └─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B] 그렇게 너와 나와는
 └─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 어디로 가는 길이나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 껍질 그 안쪽으로
[C]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워가는데
 └─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 돌아보면
 └─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D]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 그러니 선불리
 └─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E] 때아닌 낮 모기 한 마리
 └─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 잡지 않는다
 └─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 다시 신발끈을 맨다.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1.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는 (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를 낭송하는 것은 시를 특정한 호흡과 어조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의 수나 길이 등은 시를 낭송할 때의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각 연이나 시행마다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여 낭송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낭송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조를 사용하여 낭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를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볼까요?

- ① 1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길이가 짧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고, 특히 '머언 바다'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해야겠어요.
- ② 2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대체로 빠르게 낭송하고, 특히 '아주 내어 밀듯이'는 지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에 유의하는 게 좋겠어요.
- ③ 3연은 명령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며 화자의 정서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므로, 특히 마지막 행에서는 느낌표에 유의하여 격정적인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 ④ 4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수가 적어 음절 수가 적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고, 특히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는 좌절감이 드러나는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 ⑤ 5연은 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빨라지는 급박한 호흡으로 낭송하고, 특히 '향단야'를 읽을 때는 체념적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3.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는 '나무'로 상징되는 식물적 이미지를 인간적 이미지로 치환하는 상상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기를 긍정하고 타자를 포용하는 삶을 이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A] : 용이가 박힌 느티나무 뿌리를 먼 길을 걸어온 발로 치환하는 상상력이 나타나고 있군.
- ② [B] : 화자는 느티나무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며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군.
- ③ [C] : 속살이 썩어 비어 가는 느티나무 몸통에 꽃을 피우는 풀의 모습에서는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가 드러나고 있군.
- ④ [D] : 화자는 상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군.
- ⑤ [E] : 화자는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는 자기 긍정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갈래 복합 6-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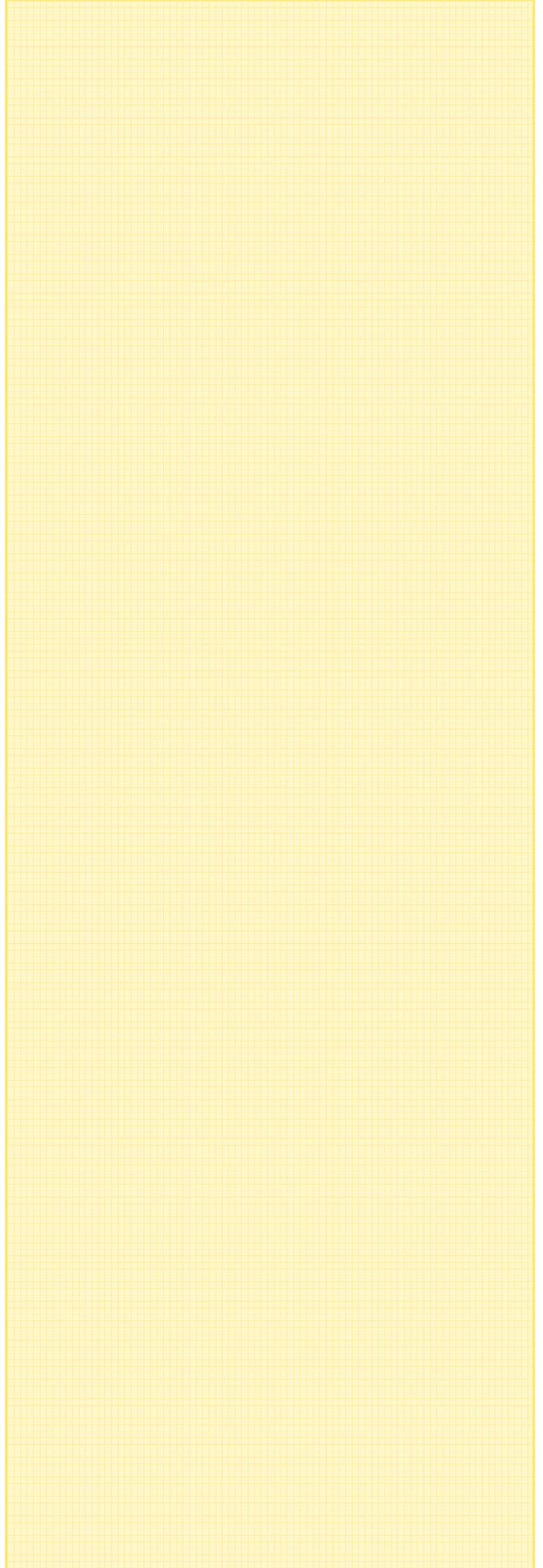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깐,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달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였다.
내 가슴이 딱 떼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
끼는 것이였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
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
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섰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였
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백석 - 14B06 -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얇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찌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육탈 : 살이 썩어 뼈만 남음.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껏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종오, 「동승」-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밭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①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②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③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⑤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백석 - 1109 -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관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썼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털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담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털거기 : 늪은 장끼.

(다)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댕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꿀일까 하노라 <6장>
-이신의, 「단가육장」-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공량 : 들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2.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4.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곽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5.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보 기 〉

「단가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백석 -0906-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슬슬한 낮이 뉘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급뎡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뎡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중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렇듯한 ㉣짚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김수영 + 백석 -2203-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칸,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떼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죽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섯*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 딜용배기 :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 나죽손 : '저녁때'의 방언. * 섯 :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 그 방을 생각하며 」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① (가)는 ‘권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새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백석 -23학년도 사관-

(가)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잎도 머리카락도 형곶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
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
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
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백석, 「 모닥불 」-

- * 새끼오리: 새끼줄 조각. ‘오리’는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 * 갓신창: 가족신 바닥에 댄 창. ‘갓신’은 ‘가족신’의 옛말
- * 개니빠디: 개의 이빨. ‘니빠디’는 ‘이빨’의 평북 방언.
- * 너울쪽: 널빤지.
- * 닭의 깃: 닭의 깃털. ‘깃’은 ‘깃’의 방언.
- * 짚검불: 지푸라기.
- * 재당: 향촌의 최고 어른에 대한 존칭.
- * 초시: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 문장(門長): 한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 * 갓사둔: 새사둔.
- * 몽둥발이: 몽둥발이.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나)

눈 위에주름귀밑에물사마귀
 다들 한결같이 낯설지가 않다
 아저씨 워데까지 가신대유
한강만 넘으면 초면끼리 주고받는
 맥주보다 달빛에 먼저 취한다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찻간에 가득한 **고향의 풀냄새**
 달빛에서는 **귀뚜라미 울음도** 들린다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순대면서유
 쫓기고 시달린 삶이 꼭 꿈결같아
 터진 손이 조금도 쓰리지 않고
 감도 **빼붙었겠지유** 인제
 ㉡이 **하루의 행복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도 적지 않으리
 여봐유 방앗간집 할머니 아니슈
 돌려 세우면 처음 보는 시골늙은아낙
선물 보따리가 달빛 속을달려가고
 너무 똑같아 실례했슈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낯선 데가 하나도 없는 귀성열차

- 신경림, 「 귀성열차 」-

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점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가)와 (나)는 이질적 존재들이 어울리는 순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들은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무화(無化)시키고 하나의 동질성을 획득하면서 어울림의 순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매개체를 통하여 혹은 시공간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가)의 1연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운 각양각색의 사물들은 ‘타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모닥불’을 만들어낸다.
- ② (가)의 2연에서 ‘재당’과 ‘초시’로부터 ‘큰개’와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가 무화되어 동질성의 차원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나)의 ‘귀성열차’는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낯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아우르는 동질화의 공간이다.
- ④ (나)의 ‘한강’은 ‘고향의 풀냄새’와 ‘귀뚜라미 울음’으로 충만한 공간이 ‘선물보따리’의 종착역으로 인식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 ⑤ (나)의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순대면서유’와 같은 말은, 사람들 사이의 이질성과 심리적 거리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 모두에는 대상의 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 ② ㉠과 ㉡ 모두에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과 ㉡ 모두에서 화자의 인식이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는 화자가 느끼는 비애의 정서가, ㉡에는 화자가 잠겨 있는 안도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⑤ ㉠에는 화자 자신의 현재에 대한 성찰이, ㉡에는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갈래 복합 6-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흙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양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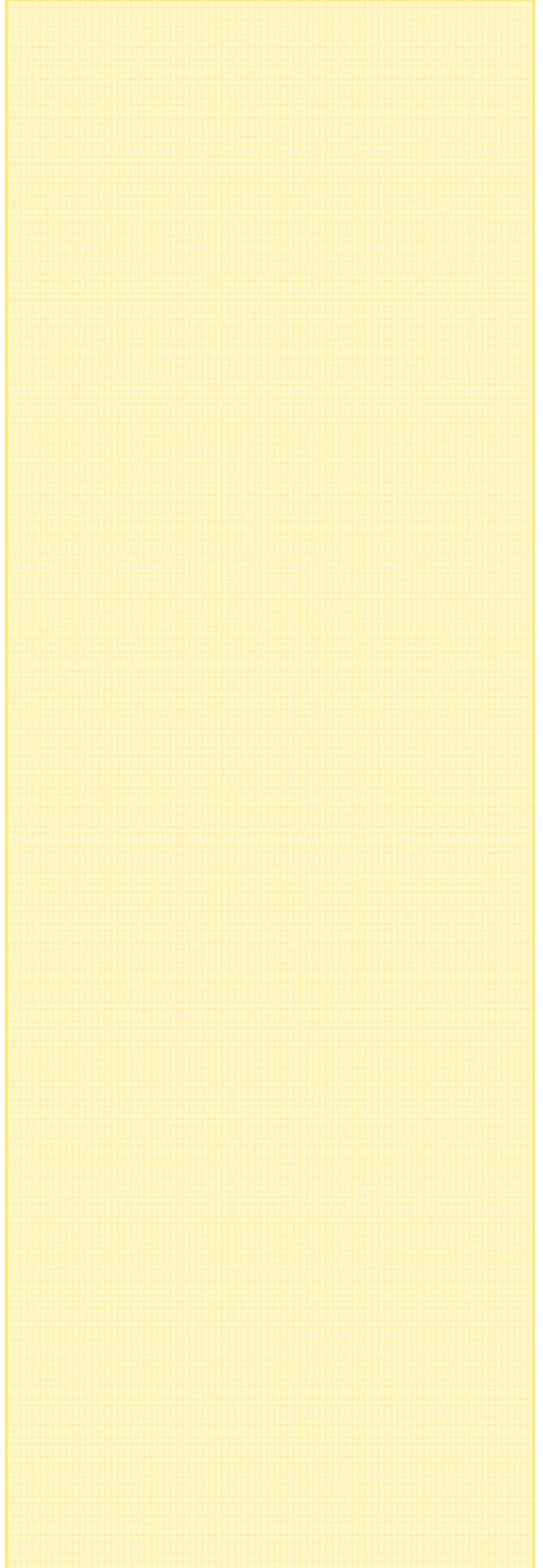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최승호 + 정지용 -1006-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 돌곳 몸 돌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울리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굽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최승호, 「대설주의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2.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인 것 같아.

3.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 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4.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최승호 + 이육사 - 2304 -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피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 -

* 별목정정 :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 홀로 우뚝한 모양.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C]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D]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붙어났다는 사실이다

[E]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물왕저수지라는 핏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꽂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긴 가문 날 흙먼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핏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F]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G]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잉어들은 짹짹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발효하는 습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다)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묻기를,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천한 일이운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대저 바다는 죽
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으며, 반드시 바닥까
지 잠겨야 하며, 숨을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찾기를
다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찢러야
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도 없으며, 전
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사람을 잘
무는 나쁜 고기들도 많으며, 바다 밑은 또 매우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
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십여 세가 넘으면
서 얕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익혀 깊은 데로 갑니다. 이십
세에 이르러서야 전복 잡이는 가능하며, 사십이 넘으면 그만
됩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털이 타
고 마르며, 그 살갓은 거칠고 얼룩얼룩하며, 일어나고 기거하
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의 괴롭고 천함이 이와 같으
며,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
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듣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하니, 그 잠수부가 입을 딱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
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니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어 같을 것입니다.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
히 앉아서 녹을 먹고, 수레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
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이 우뚝 높고, 조정
에 들어가면 부(府)나 성(省)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
(州)나 부(部)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
를 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府省)
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領海)에 있습니다.

(중략)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
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
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 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
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어느 것이 더 낫
습니까?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
서 보건데,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벼슬
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
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
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픔입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
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
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일을 태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 김진규, 「몰인설(沒人諫)」 -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 (다)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가) ~ (다) 모두 청각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썰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밭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겠군.

3.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나’는 타인이 겪을 일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4. [A] ~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설(諫)의 표현 방법 중에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몰인설」의 글쓴이는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과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대화 상대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에서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최승호 + 복효근-22학년도 사관 -

(가)

- ┌ 오동은 고목이 되어갈수록
└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 [A] 오동뿐이라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가 그렇다
- ┌ 잘 마른 텅 빈 육신의 나무는
└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
- ┌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라
└ 수많은 구멍으로 빛어진 삶의 빈 고목에
- [B] 어느 날
- ┌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거문고 소리 들리리니
└ 거문고 소리가 아닌들 또 어떠랴
- [C]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다면
- ┌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 바람은 쉽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갈날처럼
- [D] 햇볕 뜨거워 이승의 한낮은
- ┌ 육탈*하기 좋은 때

[E] 잘 마른 구멍 하나 가꾸고 싶다

- 복효근, 「 고목 」-

* 육탈: 살이 썩어 뼈만 남음.

(나)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 누에 」-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간표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6.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자연물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 ② [B]: [A]에서 주목한 자연 현상을 유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 ③ [C]: [B]에 나타난 삶에 대한 이해가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 ④ [D]: [C]에서 얻은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회한이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E]: [A]~[D]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화자의 소망으로 집약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존재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 성숙한 존재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수반한다. 그리고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때,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시련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실현을 돕는 환경이 된다. (가)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시련에 대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 낸 시련을 견뎌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구멍'은 '피리새'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동굴'은 '하늘백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한 마리'가 '세 들어 새끼칠 수있'는 것과 (나)에서 '누에 의왕'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삶'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구멍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날갯짓'을 시작하기 위해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한낮'은 '상처'가 후벼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긴 밤'은 '고통'스러운 '연금술'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육탈'은 '잘 마른 텅 빈 육신'을 위한 비움의 과정인 반면, (나)에서 '변모'는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갈래 복합 7-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유자밭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至純)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傾斜感)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水平)의 거리감(距離感).

유자밭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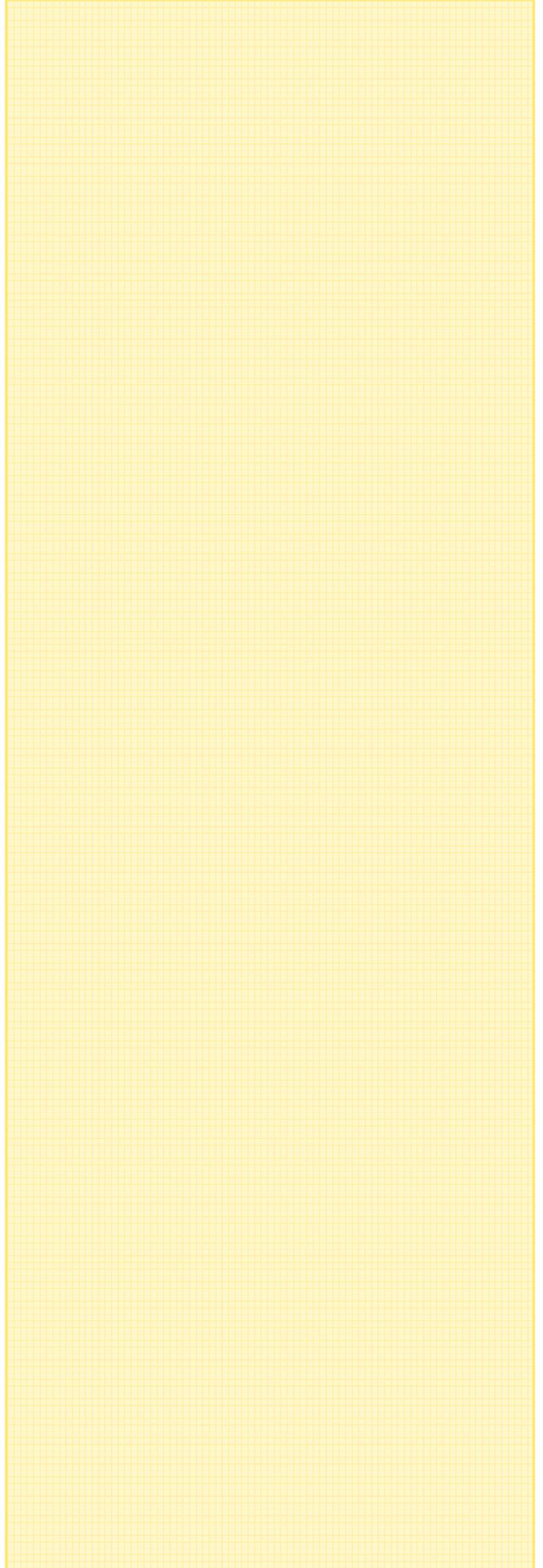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박목월, 「경사」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박목월 + 윤동주 -1709 -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과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꺾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뿔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박목월 -24학년도 사관 -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송일까. ㉡목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쥘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목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 나무 」-

(나)

그 새들은 흰뺨이란 영혼을가졌네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에서 흰색까지 모두

이 늙지에선 흔하디흔한 맑음의 비유지만

또 흰색은 지느러미 달고 어디나 가웃거리지

흰뺨검둥오리가 **떠들경**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

날개 소리는 내 몸 속에서 먼저 들리네

검은 부리의 새떼로 늙은 지금 부화중,

열 마리스무마리흰뺨검둥오리가 날아오르면

날개의 눈부신 흰색만으로 늙은 흥가분해져서

장자를 읽지 않아도 새들은 십만 리쯤 치솟는다네

흰뺨검둥오리가 떠메고 가는 것이 이늙을 포함해서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

지금 늙은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거울,

수면은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

- 송재학, 「 흰뺨검둥오리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탄식하는 어조로, (나)는 단정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하나의 공간 내에서 묘사의 초점을 바꾸고 있다.
- ③ (가)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상승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는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나)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나무를 만난 '들판'이라는 장소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수도승'과 연결되어 '늙은 나무'에서 떠올린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나무들이 서 있는 '산마루'가 하늘과의 경계라는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은 '이미'와 연결되면서, '내 안에 뿌리를 편' 나무에 대한 화자의 뒤늦은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나무에서 발견한 자신의 속성을 '뽑아낼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나)의 시인은 늙은 자연물을 보고 듣는 등의 감각적 탐색을 통해 늙과 하나가 되고 있다. 흰뺨검둥오리의 비상은 육신이 세상에 얽매어 있으면서도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상한다. 또한 늙은 긴장과 평온의 연속이라는 삶의 진실을 내보인다.

- ①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의 모습, 흰뺨검둥오리가 물을 박차고 비상할때의 '퍼들꺱'소리 등은 시인이 늙에서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군.
- ② '날개소리'가 '내 몸속에서 먼저 들린'다고 표현한 것은, 시인이 늙과 하나가 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흰뺨검둥오리가 떴메고 가는 것'의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라는 말은, 날아오르는 새들을 바라보며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존재의 목소리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거울'을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상태로 표현한 것은, 세상에 얽매어 있는 육신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늙의 '수면'이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네'라는 말은, 삶의 모든 국면 역시 긴장과 평온의 연속이라는 진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갈래 복합 7-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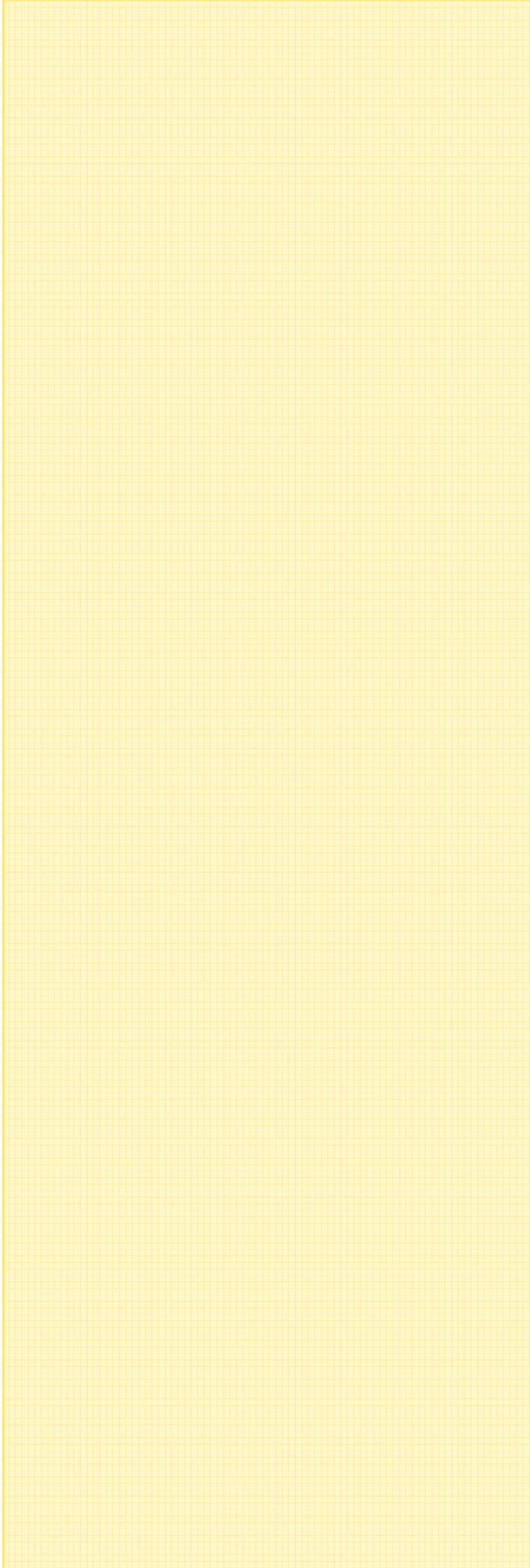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밭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여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앞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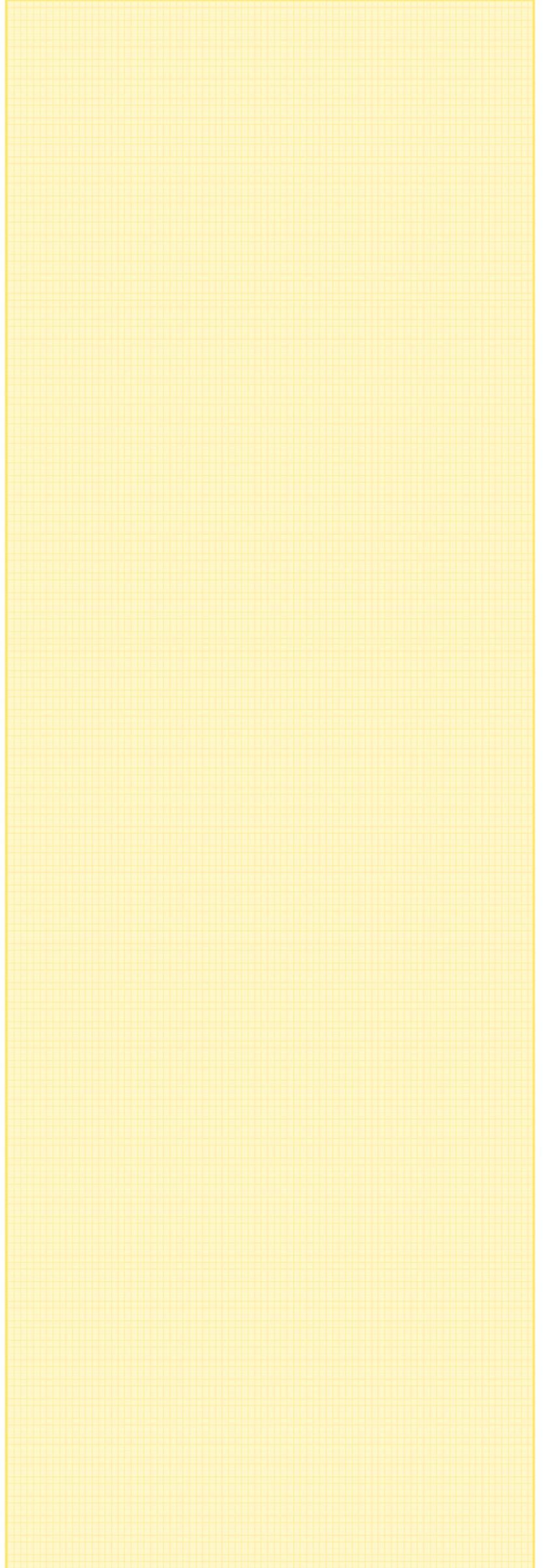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박재삼 -1909-

(가)

생평(生平)에 원(元)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자 흐야 십재황황(十齋惶惶)* 흐노라 <제1수>

계교(計巧)*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흐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흐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흐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흐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흐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名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흐물며 부귀(富貴)는 위기(危機) | 라 빈천(貧賤居)를 흐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하니 오라 말라 흐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히 만고(萬古)에 흐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언디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디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권호문, 「한거십팔곡」-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계교 : 건주어 헤아림.
-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떨위랑/ 드래랑/ 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여”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9학년도긴 한데 이거 말곤 연계 작품이 없어서 수록했습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다.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다.

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 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웅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5.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쉽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갈래 복합 8-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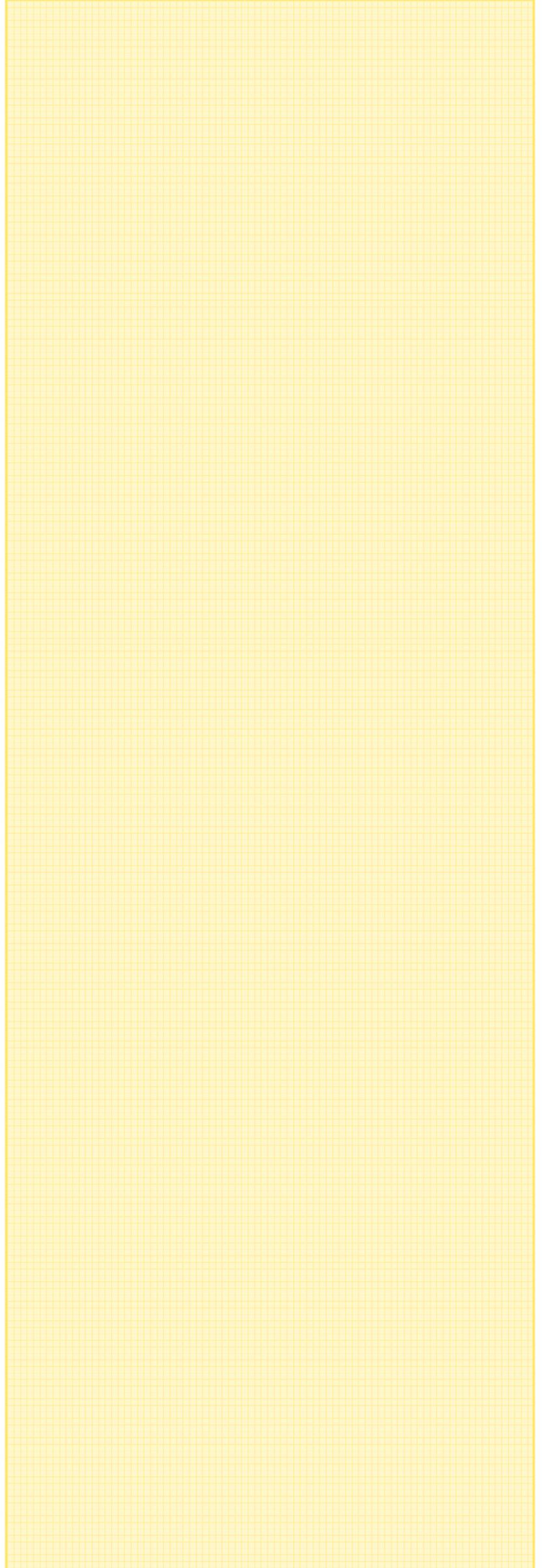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 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주먹 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길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필기 공간



-필기 공간



(가)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
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회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좁는
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
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벌목정정 :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 홀로 우뚝한 모양.

(나)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A]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앓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 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 나게 닦은 마루에 곳곳이 앓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쫓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B]

사랑은 갓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앓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 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C]

— 고재중, 「고요를 시청하다」 —

* 고금 :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

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술’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 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좇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새암’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된다.
- ②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B]에서 점점 확산하여 ‘덩굴 장미’의 색채와 어우러지며 계절감을 부각한다.
- ③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마당에 ‘붉은 진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 ④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은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되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 ⑤ [C]에서 ‘초록바람’은 ‘오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오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겠군.
- ②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적 상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멩아리 소리 찌르렁’과 (나)의 ‘동박새가 / 딱 한 번 울어서’는 모두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겠군.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부 실전 학습 1-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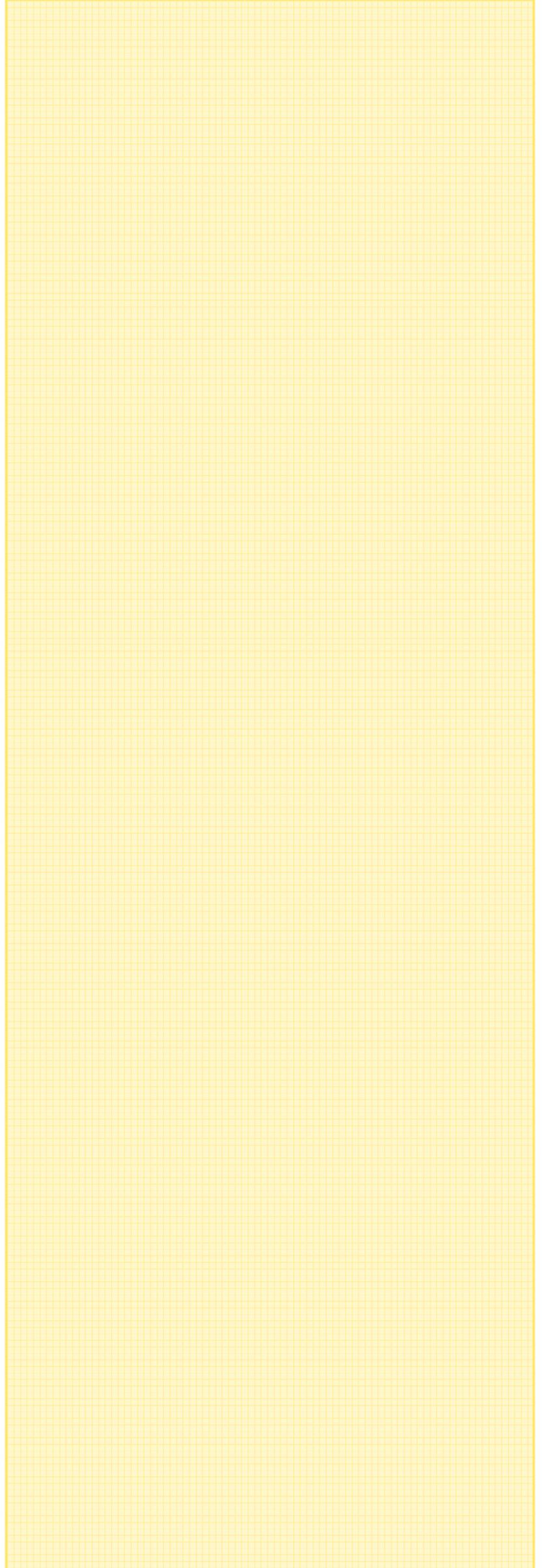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나희덕 -15A06-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ㄱ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A]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ㄴ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ㄷ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B]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ㄹ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ㅁ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C]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ㅂ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ㅅ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D]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ㅇ
홀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ㅈ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	[E]
서	ㅊ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ㅋ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 밑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 밑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났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웅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훤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계용묵, 「울정기(栗亭記)」-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난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백석 + 나희덕 - 0906 -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슬슬한 낮이 뉘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급땀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뽕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렇듯한 ㉣짚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흉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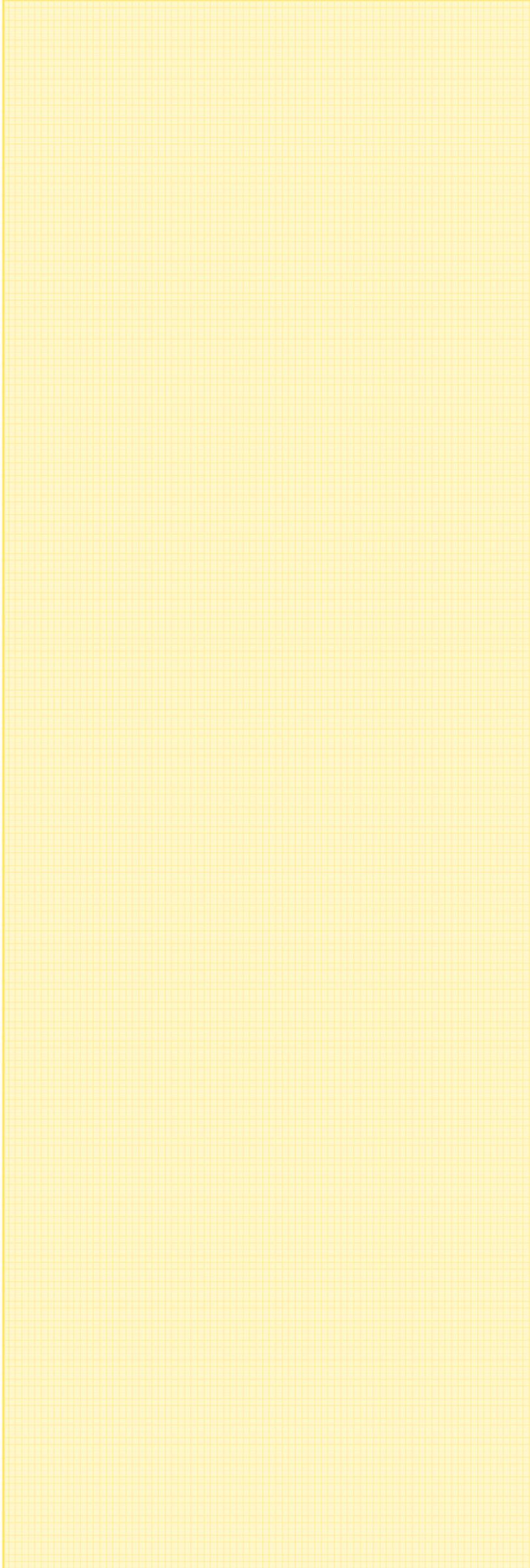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3부 실전 학습 1-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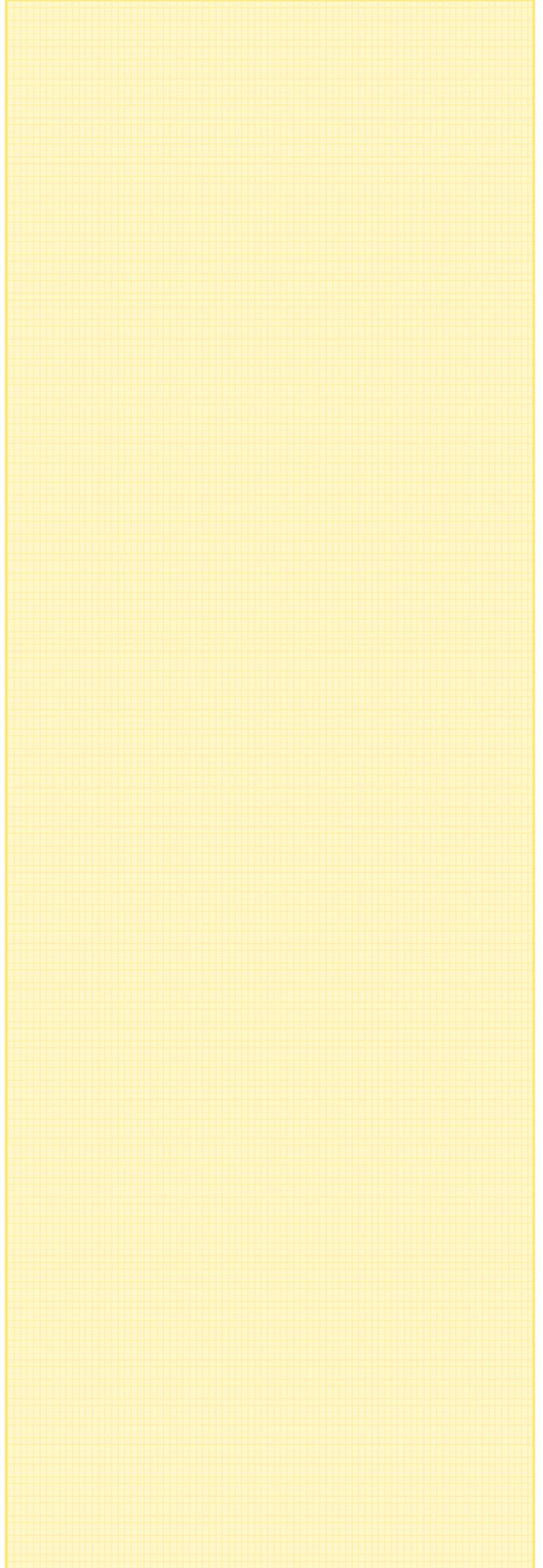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김천 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
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훑아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
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흠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
계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쏘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
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문태준, 「가재미」-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계: 신석정 + 문태준 -2204-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A]

2

바윗돌처럼 퐁퐁 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B]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짚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C]

- 신석정, 「역사」 -

(나)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 들이 살았다
별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늦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 방이 방 한 칸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하릴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백 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몽곳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의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 문태준, 「빈집의 약속」 -

(다)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만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는 듯이 하다가 앞으로 나아와 그 맥을 짚어 보았다. 그러고는 물러나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낮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

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 보니 병은 이미 나왔습니다. 무엇을 더 고치고 싶은지요?”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중략)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이 있어서 살이 찹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보니 기뻐서 살이 찌고, 소리의 가락이 어여쁘지라 즐거워서 살이 찹지요. 이 네 가지를 몸에 지니면 살찌기를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찹니다.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가난한 데다 신분도 낮고 축대로 엮은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와 거친 밥을 먹습니다. 눈은 다섯 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귀는 다섯 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바탕이 갖추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쪼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비(良肥)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구려. 내가 진실로 이 네 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하였소. 어찌 이른바 양비란 것이 있단 말이요?” 의원이 말했다.

“㉡**이른바 양비란 것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채우고 인의로 윤택하게 해서 낮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대는 또 초나라 장사꾼의 일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형산(荊山)의 옥** 하나를 썩어 두니 그 값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나라로 갔다가 금은보화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이것과 맞바꿔 돌아왔습니다. 대저 금은보화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부(良富)만은 못합니다. 장사꾼이 그 타고난 부를 잃고 나서는 어느새 밀천 또한 다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두들 초나라 장사꾼을 비웃었지요.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찾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것마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어찌 다만 초나라의 장사꾼 정도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탕이 있어 살찌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음을 가지고 병으로 삼지요.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 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어찌 자기의 형옥(荊玉)을 가지고 금은보화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 김석주, 「의훈」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인식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다)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여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온 민중을 떠올린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온 주체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을 달래꽃은 여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렵פות이 이끌려 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역사를 이어 온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 햇볕, 바람,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 마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마음'은 '보드라운'과 연결되어 애상적 분위기를, (나)에서 '마음'은 '오롯하게'와 연결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② (가)에서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나)에서 '마음'은 '착한 사진사'와 연결되어 타인을 위한 승고한 희생을 강조한다.
- ③ (가)에서 '마음'은 '알 수 없는'과 연결되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나)에서 '마음'은 '하릴없이'와 연결되어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마음'은 '조출하게'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나)에서 '마음'은 '몰아쳐'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를 드러낸다.
- ⑤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나)에서 '마음'은 '늘 빈집'과 연결되어 채워졌다가도 비워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4. (다)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지지 못한 것을 얻으려 하다가 '양비'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한다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실재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생생하게 구체화하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관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해 추상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마음에 '수의'를 걸치고 있다는 표현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빚댄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손의 '핏줄'이 뜨겁다는 표현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촉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는 표현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재하는 대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마음 안의 '고요'가 둥그렇다는 표현은, 화자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한 것이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부 실전 학습 2-

여수(旅愁)에 잠겼을 때, 나에게서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어!
요지경(瑤池鏡)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 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문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피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알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빼없는 마음으로
오 너는 무슨 두 빨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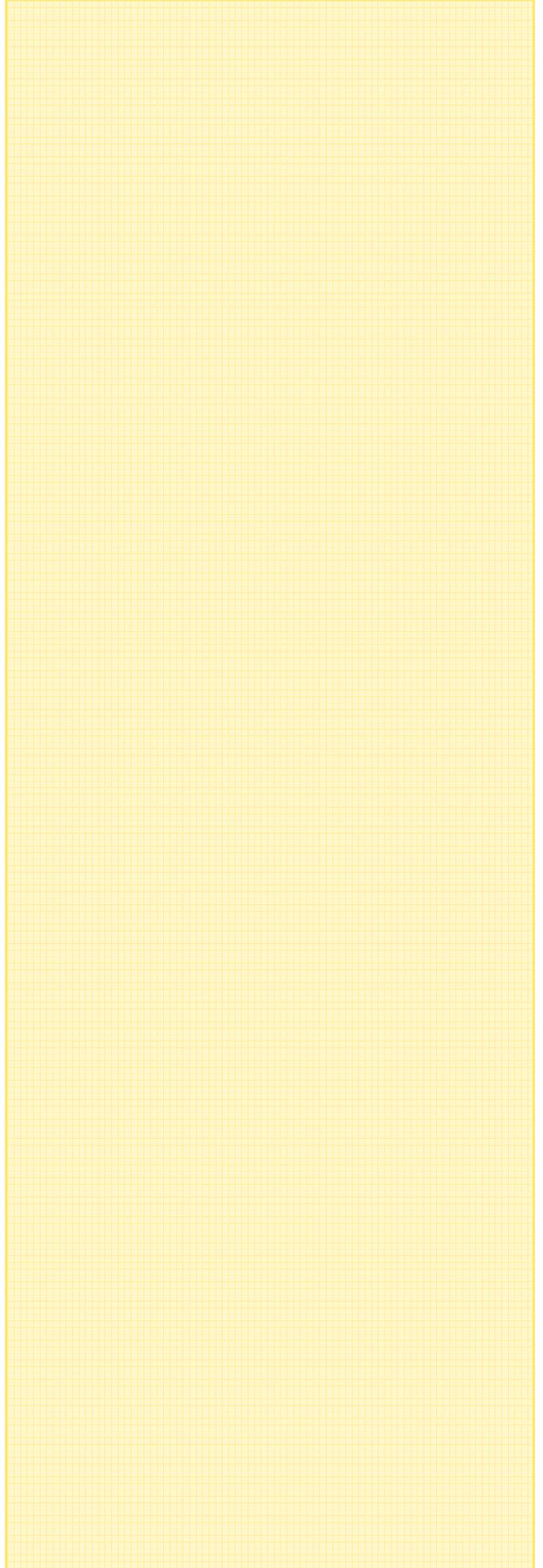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오장환, 「여수」-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오장환 + 최두석 -15B수능-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젼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오장환, 「고향 앞에서」-

*예제로: 여기저기로.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
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
름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
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
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
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
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
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 병신 오리를 잡는다.

-최두석, 「낡은 집」-

1.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라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 가족의 일원이면서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한다.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대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러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부 실전학습 2-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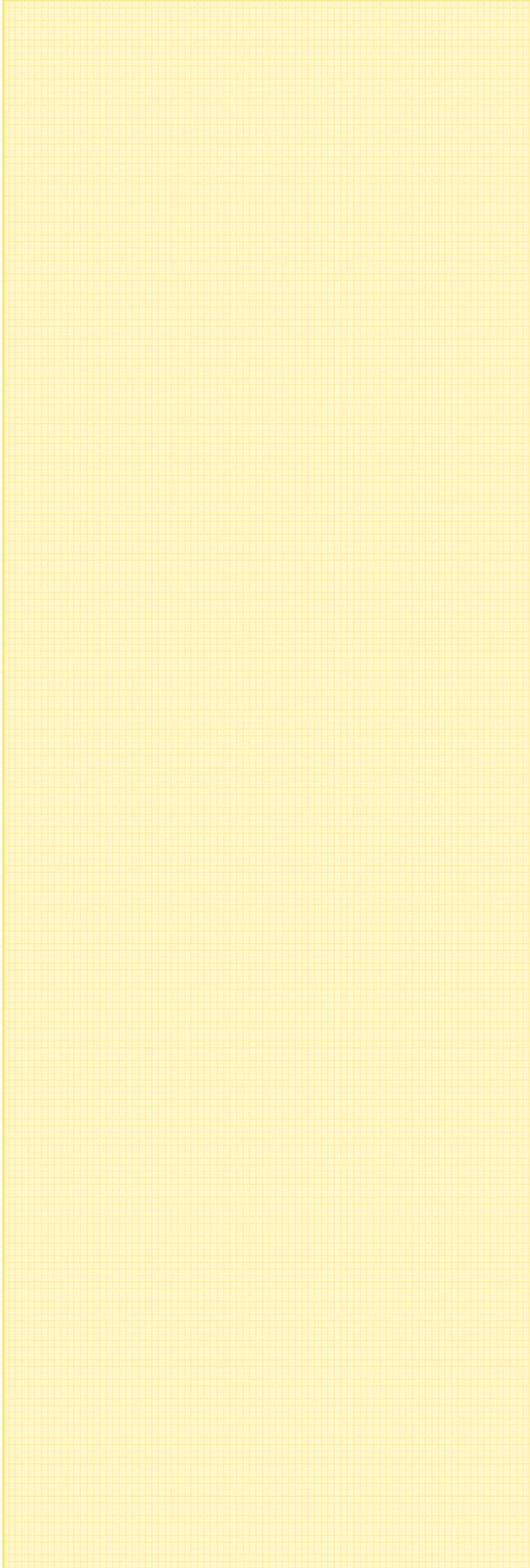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下山)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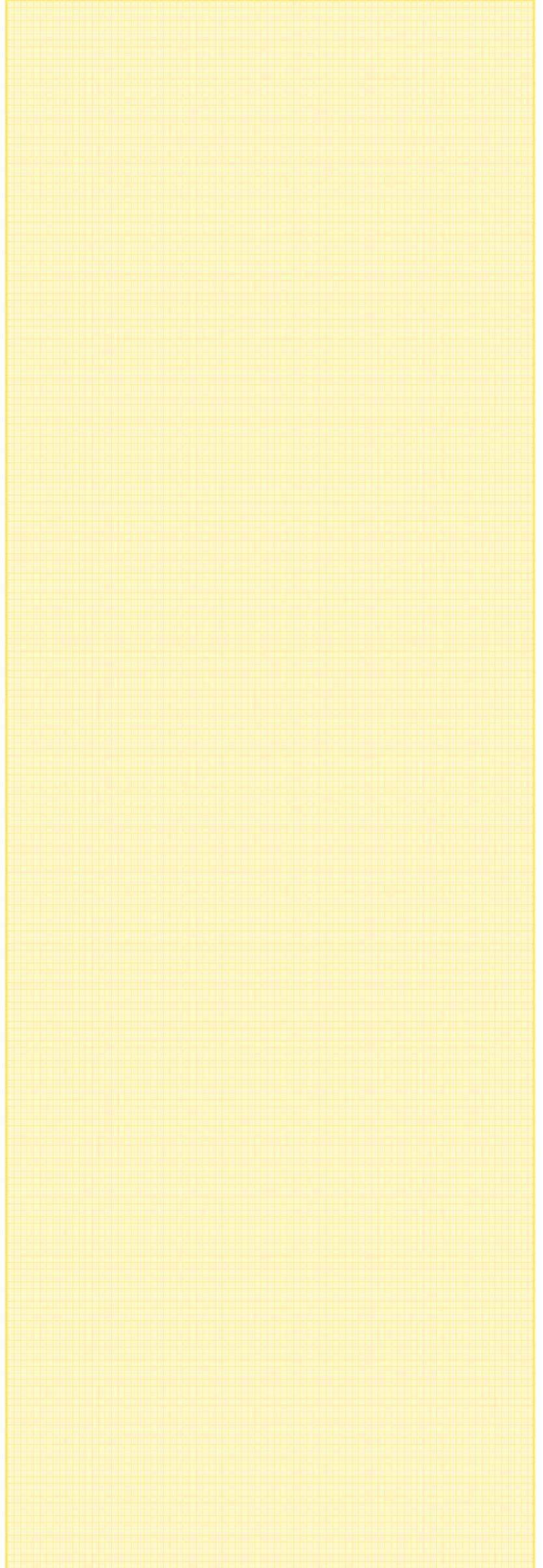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文明)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이수익, 「방울소리」-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백석 + 나희덕 + 이수익 -0906 -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슬슬한 낮이 뉘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급땀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땡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계: 윤동주 + 이수익 - 13B07 -

(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이수익, 「방울소리」-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소재에 주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1연에서 화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럼, 2연부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 ① 2연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② 3연에서 돌담에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 ③ 4연에서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지속적임을 의미합니다.
- ④ 5연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해 '눈물'지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⑤ 6연, 7연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를 유년 시절의 시간과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은 ㉠에 의해 연상된 것으로 화자의 소박하고 평화롭던 시절을 환기한다.
- ③ ㉢은 ㉡과 대비되어 현대 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④ ㉣은 화자가 소중한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 ⑤ ㉤은 ㉢을 통해 깨닫게 된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한다.

2. 빠른정답

1706

1. 3 2. 4 3. 4 4. 3 5. 5

2110

1. 1 2. 3 3. 5 4. 3

1306

1. 4 2. 1 3. 3 4. 5 5. 5 6. 4

09수능

1. 1 2. 3 3. 2 4. 2 5. 4 6. 4

2106

1. 3 2. 4 3. 5

14B수능

1. 4 2. 5 3. 3

10수능(+연계: 조지훈, 송수권)

1. 3 2. 2 3. 5 4. 2 5. 1 6. 2

2207

1. 1 2. 5 3. 3 4. 3

2405

1. 3 2. 4 3. 2 4. 1 5. 4 6. 5

1009

1. 2 2. 3 3. 4 4. 4 5. 5 6. 5

2107

1. 2 2. 3 3. 3 4. 4

2304(+연계: 이육사, 백석)

1. 3 2. 4 3. 1 4. 4 5. 4

15B수능(+연계: 최두석, 오장환)

1. 1 2. 3 3. 1

14B예비평가

1. 3 2. 3 3. 4

1209

1. 5 2. 4 3. 5 4. 4

0810

1. 1 2. 5 3. 4 4. 4

15A수능

1. 3 2. 3 3. 4

1006(+연계: 정지용, 최승호)

1. 5 2. 5 3. 4 4. 5

2303(+연계: 정지용, 고재중)

1. 1 2. 2 3. 5

1111 고2(+연계: 박두진)

1. 1 2. 5 3. 3 4. 1

1409 고1

1. 1 2. 4 3. 5

14B09(+연계: 유치환, 신경림)

1. 4 2. 3 3. 3

2111 고2

1. 5 2. 4 3. 2

16B09

1. 5 2. 3 3. 2 4. 1 5. 4

2204(+연계: 신석정, 문태준)

1. 4 2. 2 3. 5 4. 5 5. 5

10수능(+연계: 조지훈, 송수권)

1. 3 2. 2 3. 5 4. 2 5. 1 6. 2

0809

1. 2 2. 5 3. 3 4. 1

2210(+연계: 이용악, 신경림)

1. 2 2. 4 3. 3 4. 5.

15B07

1. 3 2. 4 3. 5 4. 5.

1210

1. 4 2. 1 3. 3 4. 4 5. 2 6. 5

14B09(+연계: 유치환, 신경림)

1. 4 2. 3 3. 3

0909

1. 2 2. 2 3. 1 4. 2 5. 2 6. 4

2210(+연계: 이용악, 신경림)

1. 2 2. 4 3. 3

23사관

1. 5 2. 4 3. 1 4. 5.

1709(+연계: 윤동주, 박목월)

1. 4 2. 3 3. 4. 5.

1309(+연계: 윤동주, 김기택)

1. 3 2. 5 3. 2 4. 4 5.

11수능

1. 4 2. 4 3. 2 4. 4 5.

0806

1. 2 2. 4 3. 4 4. 1 5. 5 6. 1

2310(+연계: 윤동주, 문정희)

1. 4 2. 1 3. 4 4. 5.

16B수능

1. 5 2. 4 3. 3 4. 5.

1309(+연계: 윤동주, 김기택)

1. 3 2. 5 3. 2 4. 4 5.

1809(+연계: 정지용, 김현승)

1. 4 2. 1 3. 4 4. 5.

1106

1. 4 2. 4 3. 3 4. 4 5.

17수능

1. 2 2. 2 3. 1 4. 2 5. 4 6. 3

13수능

1. 5 2. 3 3. 3 4. 1 5.

08수능

1. 5 2. 3 3. 1 4. 2 5. 2 6. 3

2203(+연계: 김수영, 백석)

1. 1 2. 2 3. 4 4. 5.

2410

1. 3 2. 4 3. 2 4. 5.

1706 고2

1. 2 2. 3 3. 3 4. 5.

2310(+연계: 윤동주, 문정희)

1. 4 2. 1 3. 4 4. 5.

1704

1. 4 2. 3 3. 5 4. 5.

2410

1. 3 2. 4 3. 2 4. 5.

22사관

1. 2 2. 4 3. 2 4. 5.

15B03

1. 1 2. 5 3. 5 4. 5.

14B06

1. 1 2. 4 3. 2 4. 5.

1109

1. 1 2. 4 3. 4 4. 5 5. 2 6. 3

0906(+연계: 백석, 나희덕, 이수익)

1. 2 2. 2 3. 5 4. 4 5.

2203(+연계: 김수영, 백석)

1. 1 2. 2 3. 4 4. 5.

23사관

1. 5 2. 4 3. 1 4. 5.

1006(+연계: 정지용, 최승호)

1. 5 2. 5 3. 4 4. 5 5.

2304(+연계: 이육사, 백석)

1. 3 2. 4 3. 1 4. 4 5. 4

22사관(+연계: 복효근, 최승호)

1. 2 2. 4 3. 2 4. 5.

1709(+연계: 윤동주, 박목월)

1. 4 2. 3 3. 4. 5.

24사관

1. 2 2. 1 3. 4 4. 5.

1909

1. 1 2. 2 3. 5 4. 3 5. 3

2303(+연계: 정지용, 고재중)

1. 1 2. 2 3. 5 4. 5.

15A06

1. 2 2. 4 3. 5 4. 5.

0906(+연계: 백석, 나희덕, 이수익)

1. 2 2. 2 3. 5 4. 4 5.

2204(+연계: 신석정, 문태준)

1. 4 2. 2 3. 5 4. 5 5. 5

15B수능(+연계: 최두석, 오장환)

1. 1 2. 3 3. 1 4. 5.

0906(+연계: 백석, 나희덕, 이수익)

1. 2 2. 2 3. 5 4. 4 5.

13B07(+연계: 윤동주 + 이수익)

1. 3 2. 3 3. 2 4. 5.

3. 기출 없는 현대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부 현대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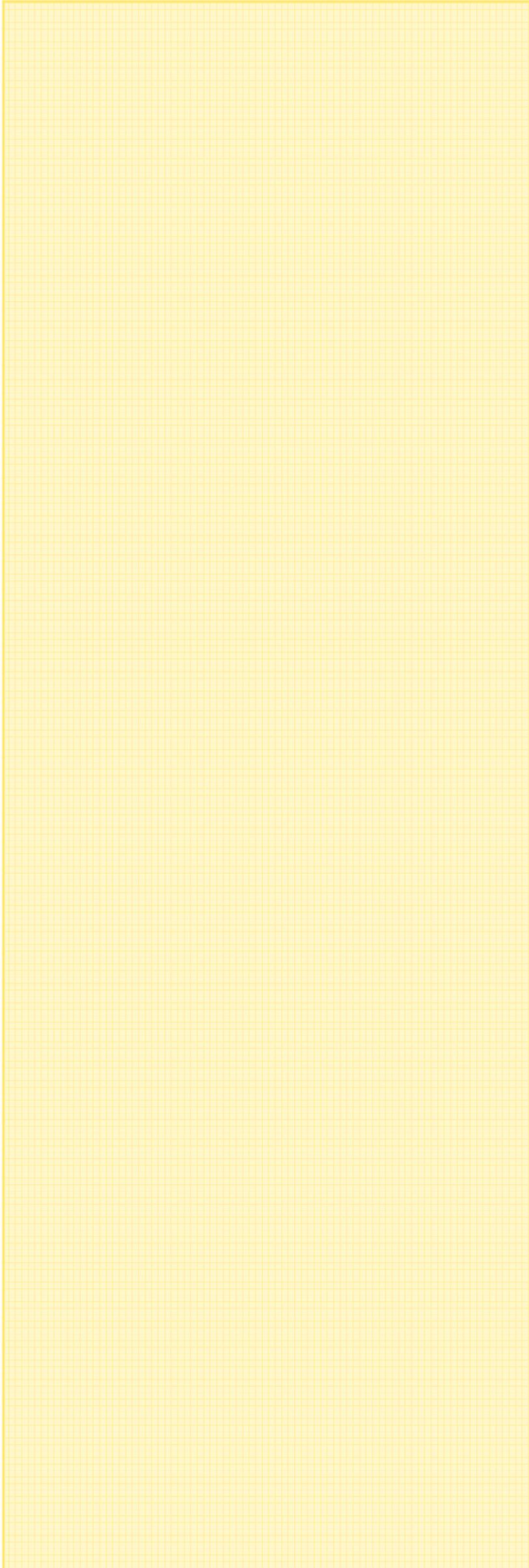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랴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聲)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오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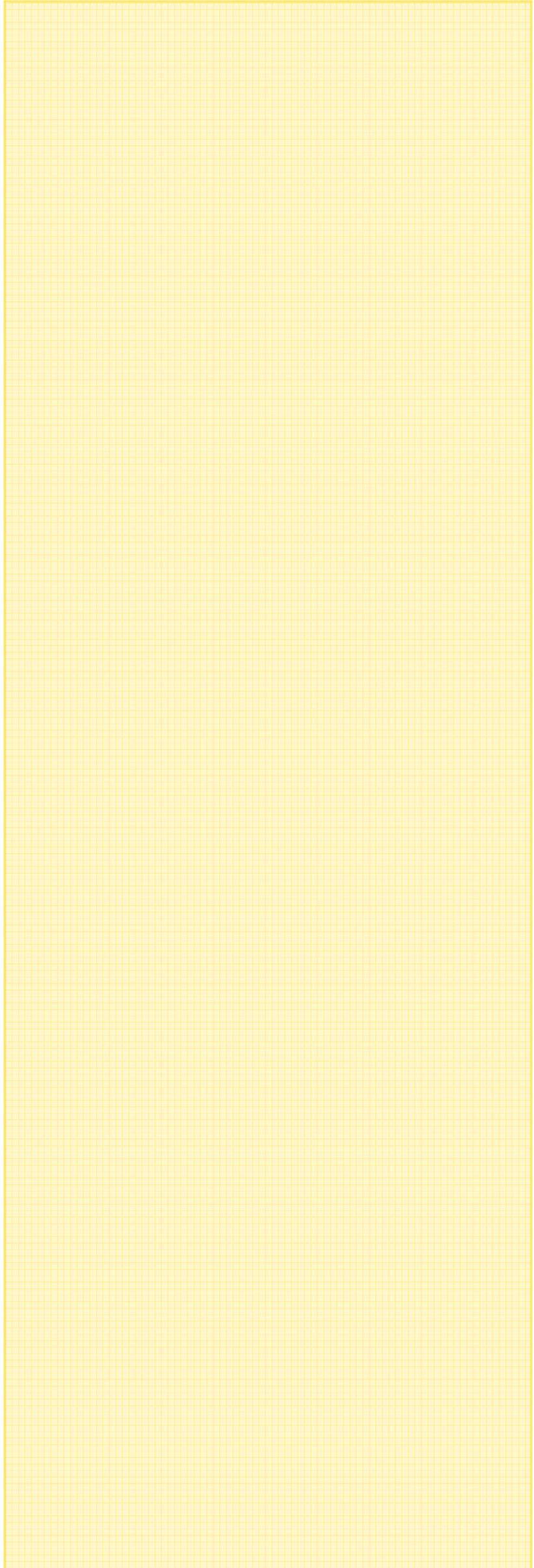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심훈, 「그날이 오면」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현대시 4-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네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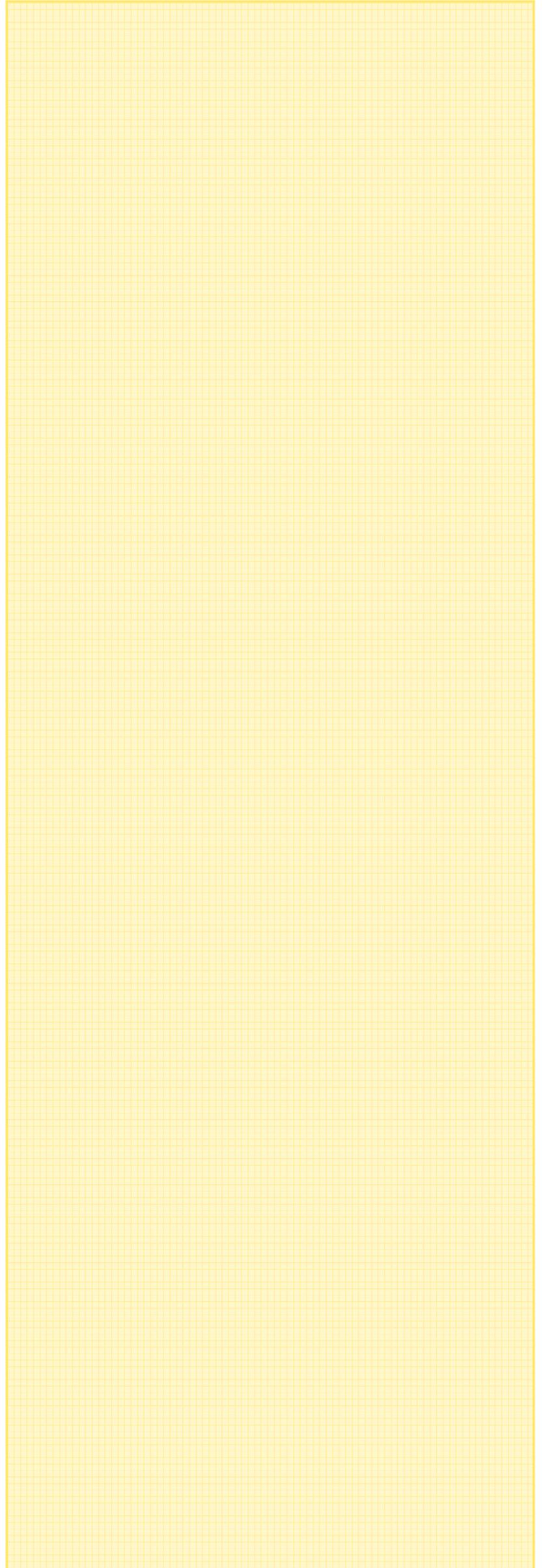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최하림, 「아침 시」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부 갈래 복합 9-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문제는 없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단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이문제,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

-필기 공간



-필기 공간

